

연구총서2000-11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임 강 택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이 군사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남한과의 군사력 경쟁에 몰두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순수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력 확대 가능성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사비 지출과 경제실적간의 상관성을 보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 노력과 군사력 강화 노력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군수부문 중심의 투자를 통한 군사력 증대 정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점을 발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군사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그 동안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일시대를 열면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하에서 군사강국건설을 위한 ‘총대 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중시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군수산업 중시정책과 경제난 극복은 양립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하며, 외국자본은 북한이 군사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 들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에 파급된 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의 추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방 초기부터 절실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1948년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병기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수산업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전후 복구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는데서 전쟁의 경험을 참작하여 군수공업을 계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기계공업과 금속공업부문의 공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수산업의 군수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일반경제부문 공장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북한의 중공업부문 공장의 생산체계가 군산복합체적인 특성을 갖게된 발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일성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산업 중시 정책이 일정부분 경제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후 북한은 경제시설을 복구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문제가 제기되었다. 북한은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인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국방부문에 많은 젊은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문이 인적자원의 배분의 측면에서 일반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다

고 밝히면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국방건설이 경제건설과 상충관계 (trade-off)에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국방건설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일반경제부문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북한의 군수산업정책

북한의 군수산업은 해방 후 전쟁 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병기공장을 복구하고, 소련으로부터 자재와 기술지원을 받아 소화기(小火器)와 탄약을 생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군수산업 발전을 추진하던 초창기, 북한은 선발 군수공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공장들을 점차 독립적인 공장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식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선발 군수공장을 ‘모체공장’, ‘간부공장’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군수산업의 확대·발전과정에서 이들 선발 공장들이 군수산업을 조직지도할 수 있는 기술간부와 숙련공 및 관리간부를 양성해 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개시되기 전 기술자들을 소련으로 보내 군수산업의 기술적 훈련과정을 이수시킨 후, 무기제작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당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무기는 7.62mm 기관단총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북한의 군사력은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은 피폐한 경제를 복구하는데 몰두하면서 중공업의 우선적 복구를 통한 공업화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철공업, 기계공업, 병기공업, 광업, 전력공업, 화학공

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및 방직공업 등의 우선적 복구·발전을 강조하게 된다. 군수산업의 발전이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군사부문에만 몰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직후 북한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업부문의 우선적인 투자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목표가 ‘국방력이 강한 공업국가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군수산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군수공업부문에서 일하는 핵심 노동자, 기술자 및 관련 공장·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모인 ‘전국병기공업부문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자체의 무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체의 방위력을 강력하게 확보해야 마음놓고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강화한다는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 방침은 1962년 12월에 소집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제시된 북한의 군사력 강화 방향은 ‘4대군사노선’으로 알려진 ‘군대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 ‘군사진지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이다.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정책을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확정된 이후 북한은 이러한 노선의 당위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의 관철을 위한 노력을 거듭 강조하였다.

1970년 11월 2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제4차대회(1961.9) 이후의 9년을 결산하면서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으로써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 국방력강화에서 큰힘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라고 강조하고, 동기간 동안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국방건설에 필요한 공업제품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와서도 북한은 군수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의 질을 높이는 것과 현대적인 무기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와 함께 1970년대 초반부터 강조했던 전쟁준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한 점이다. 유사시 모든 주민이 무장하고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가 전쟁을 위한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는 북한이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에 치중하면서 첨단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동기간 중 북한은 각종 유도무기와 항공기 등을 조립 생산하였으며, 기술개발과 시설확장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 미사일 생산과 핵무기개발에 주력하여 특히 미사일 생산에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무기의 자체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킴에 따라서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 북한은 국방건설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옹기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경제건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건설에만 치중하여 국방건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주변의 정세에 맞추어 강약을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세는 국방건설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급변한 국제정세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북한은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특히 더 강조하고 있다. “적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경제적봉쇄와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대와 군수부문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군수산업 운용체제와 제2경제

‘제2경제’로 지칭되는 북한의 군수산업은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당·내각·군의 3원적 체제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최고지도기관은 1992년 북한의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였으나, 헌법의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상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휘하는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부상하였다.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제102조)고 규정하고 있다.

내각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산업분야에 있어서 최고 조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 직속기구인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생산·분배 및 대외무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인 전병호(중앙당 군수공업부 담당 비서)와 김철만이 최고책임자로 알려 지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제2경제위원회는 8개의 총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제2과

학원과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대외경제총국 및 자재공급을 담당하는 자재상사를 두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하부에 130여개의 군수공장·기업소와 60여개의 병기수리창 및 부속품제조창을 두고 있으며, 이들 공장들은 일련번호나 위장명칭을 사용하여 생산무기의 성격과 유형을 은폐하고 있다. 이 밖에 유사시 군수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민수품 공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중·대형 공장들은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군대의 유지에 필요한 물자 생산 및 파손된 무기의 수리를 중심으로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어 무기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민무력부내에서 군수 생산을 관리하는 부서로는 총참모부 장비관리국, 운수관리국, 검수국과 후방총국 등이 있으며 총참모부 산하에 있는 제15국(기술총국)은 장비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총참모부 산하의 매봉총국(매봉 무역상사)은 미사일부품의 수출입을 책임지고 있으며 외국에 사무소를 둔 유일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이다.

군수품 생산 전문공장이 아닌 내각 산하의 일반기업들에 군수품을 생산하는 분공장(또는 직장)을 설치, 제2경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이라고 부르며 무기류나 장비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들을 협동생산하고 있다. 이들 일용분공장은 인민경제 전반에 거미줄처럼 뻗어있어 수만개에 달하는 군수협동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군수공장들에서는 이 협동품들을 받아서 조립 생산한다. 협동품이 보장되지 않으면 군수생산 전반이 지연됨으로 민수부문의 군수체계에 대한 당군사위원회와 제2경제위원회, 국가정무원의 통제와 독촉은 대단하다고 한다. 군수협동품들에 대한 생산과제는 모두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되며, 제2경제위원회에서는 ‘일용생산지도국’이 협동품 생산공정을 지도하고, 정무원에서는 사무국에 방대한 기구를 두고 군수협동품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4. 군수산업 우선 정책의 북한경제 파급 효과

북한에서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들을 종합하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기술도입 및 전파 효과, 공공재 공급 효과,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연구개발부문이 포함된 민간의 투자 구축효과와 수출부문의 가용자원 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60년부터 1999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잡았으며 연도별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샘플기간을 3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과정(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1960~70대와 1980~90년대를 구분하여 본 결과에 따르면 1980~90년대에서 정의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1990년대에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의 기간동안 북한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후퇴해 온 것을 고려할 때, 1990년대 북한의 군사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경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논란이 되어 온 것만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이번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에서 군사부

문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경제발전 저해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가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0년대 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에서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가 일반경제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에서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이 가져온 기술도입 및 전파 효과, 공공재 공급 효과,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민간의 투자 구축효과와 수출부문의 가용자원 축소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하여 정(正)의 순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구결과가 갖는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보수적인 접근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북한 스스로 군수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일반경제부문의 발전계획이 차질을 빚었음을 시인한 1960년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실증분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II.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	4
1.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2. 군수산업 건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18
III.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	40
1. 준비단계: 해방 후 1950년대까지	40
2. 기반구축단계: 1960년대	45
3. 확장단계: 1970년대	55
4. 고도화단계: 1980~90년대	60
IV. 군수산업 운용체계와 제2경제	66
1. 군수산업 운용 체계	66
2. 제2경제	72
V. 군수산업 우선 정책의 북한경제 파급 효과	87
1. 군수산업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87
2.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성 분석	111
VI. 결 론	122
참고문헌	130

표목차

<표 1> 제2경제위원회 기구	69
<표 2> 제1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75
<표 3> 제2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76
<표 4> 제3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77
<표 5> 제4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78
<표 6> 제5총국 산하 주요 공장	79
<표 7> 제6총국 산하 주요 공장	80
<표 8> 제7총국 산하 주요 공장	81
<표 9> 북한의 군사비에 대한 추계 비교	89
<표 10> 북한의 군사비 추정	94
<표 11> 북한군의 비중 추계	104
<표 12> 군부문의 대외무역 활동	108
<표 13> 북한의 무기수출입 현황	110
<표 14> 군사비 지출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114
<표 15> 군사비 지출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19

그림목차

<그림 1> 총과 빵의 상충문제	7
<그림 2> 군부의 무역관련 기구표	107

I. 서론

구 소련의 군수산업관련 사상과 정책 및 경제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는 Leo Cooper¹⁾에 따르면, 군비경쟁은 군사력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는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과 경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방위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라는 점에서 한 국가의 군사정책과 경제실적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남한과의 군사력 경쟁에 몰두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순수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력 확대 가능성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사비 지출과 경제실적간의 상관성을 보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 노력과 군사력 강화 노력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군수부문 중심의 투자를 통한 군사력 증대 정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점을 발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7~71년간 예산의 평균 30.9%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였다고 발표한 뒤 1972년부터는 이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군사비 관련 자료가 입수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은폐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액수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군사부문에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

1) Leo Cooper, *The Political Economy of Soviet Military Power*,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군사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작년(1999)의 경우 북한은 그 동안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9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난 극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일시대를 열면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하에서 군사강국건설을 위한 ‘총대 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자원의 우선 배분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북한경제의 침체를 유발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제한된 자원을 군수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군수산업 우선 투자정책과 경제난 극복은 양립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하며, 외국자본은 북한이 군사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 들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보여준 변화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강조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발상인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 외에 군사분야의 기술력을 제고시킨다는 점이 고려

2) 국방부는 '90년대 북한의 GN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27%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참조.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력 강화와 잠재 군사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의 전망은 북한당국이 군수산업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경제의 미래를 의미 있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정치·경제구조의 사상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북한의 군사관련 정책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정되었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에 과급된 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의 추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주요 분석대상

군수산업 관련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군수산업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북한의 군수산업의 발전과정, 군수산업의 비중 및 경제적 과급효과를 『김일성저작집』 등 북한문헌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군수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북이탈주민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황에 접근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북한의 군수산업 관련 사상과 정책의 결정과정 및 변화 추이, 군수산업에 대한 자원배분 추이,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의 관계 등이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군수산업 중점투자 정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

1.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군수산업의 개념

『정치경제학사전』(1988)에 따르면, 군수산업은 군사적 용도를 전체로 생산·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산업조직을 의미하며 일반산업과 다른 재생산외적 성격의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생산외적 성격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군수산업은 일반적으로 확대재생산 내지 소비를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생산력을 증대해 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³⁾

『경제학대사전』(1985)에서는 군수산업을 평화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군비확장경쟁의 기본을 이루며 직·간접으로 군수품을 생산하는 일단의 공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과 평화산업이란 분류는 다분히 상대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민수산업도 잠재적인 군수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군수산업이란 개념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의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⁴⁾

북한은 군수산업을 ‘국방공업’ 또는 ‘군수공업’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 『경제사전』(1985)에 따르면, ‘국방공업’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 군수품에는

3) 조용범·박현채, 『정치경제학사전』, 돌베개, 1988, pp.108~9. 김용환, 『러시아 군수산업경제와 군수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p. 8에서 재인용.

4) 『경제학대사전』, 박영사, 1984, pp. 301~2.

무기, 탄약, 군복을 비롯하여 군대를 유지하며 전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물자들이 포함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국방공업은 총, 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비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군용식료품 등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북한은 사회주의하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은 ‘자위적 국방력의 건설’이라면서, 국방에서 자위할 수 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자위적 국방력건설에 필요한 무기를 자체로 생산할데 대한 방침’에 따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한편 북한의 공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군수산업정책 핵심을 자립적 군수공업으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주체위업’을 보위·진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주체위업을 무장으로 보위하는 것을 북한 군수공업의 기본 목표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수공업건설 원칙으로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국방공업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5) 『경제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25.

6) 앞의 책, p. 225.

7) ‘주체위업’이란 북한을 ‘김일성주의’ 즉 수령절대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만들며, 수령절대주의의 기치밑에 남한을 해방하며 수령절대주의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철, “북한 당 군수공업부를 논함,” 『민족통일』, 2000년 3월호 참조

나.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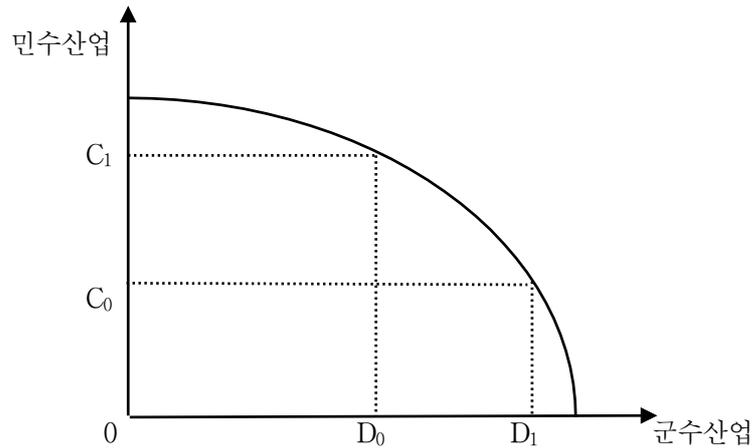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반경제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이와 관련한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양자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견해와 부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도 어느 한쪽의 입장과 일치된 결과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비 증대가 국가경제와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자간의 논쟁은 크게 고전학과 계열과 케인즈학과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회비용과 시장의 조정기능을 강조하는 고전학과 계열은 국방비 지출 증대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국민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방비를 총 유효수요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케인즈학과 계열은 국방비 지출 증대는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신고전학과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희소자원이 국방분야에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나 의료부문과 같은 일반경제 분야의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는 총과 빵의 상충문제(“guns versus butter” trade-off)이다.

8) 케인즈학과 계열의 주장은, 경제에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국방비 지출 증대가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생산과 고용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림 1> 총과 빵의 상충문제



한 국가경제의 모든 가용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방비의 지출을 증가($D_0 \rightarrow D_1$)시킨다는 것은 민수산업의 생산 감소($C_1 \rightarrow C_0$)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주장에 기초한 국방비의 부정적인 인식은 케인즈의 국방비를 포함한 공공지출의 확대가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자극한다는 긍정론적 시각에 의해서 도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각각의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⁹⁾과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파급경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단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9) 특히 분석 대상 국가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10) 기존에 시도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는 Sandler, Todd and Keith Hartley, *The Economics of Defens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215~219)에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먼저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Chan(1992)은 군사 관련 지출이 비군사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고전경제학(classic economics)에서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결정하는 3대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 자본, 기술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만 접근하는 시각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 이들의 관점이 어떤 차이를 보여 주는지 살펴보자.

첫째가 현대화효과(modernization effect)인데, 이 시각은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Benoit의 연구결과¹²⁾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Benoit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은 국내 민수산업 분야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투자를 구축(驅逐)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일부 노동력의 군 복무를 통하여 최신 기술과 추세를 습득하게 하고,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확충사업에 도움을 주며, 적정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후속연구에서 지지와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현대화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Benoit의 분석결과에 대한 주된 비판은 주로 그가 사용한 연구방법론과 사용

11) Chan, Steve, "Defence, welfare, and growth: introduce," Steve Chan and Alex Mintz(eds.), *Defence, Welfare, and Grow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3~6.

12) Emile Benoit, "Growth effects of defens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4, 1972, pp. 2~10 ; Emile Benoit, *Defenc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D.C. Heath, 1978 ; Emile Benoit, "Growth and defense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6, 1972, pp. 271~280

한 통계자료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Benoit의 연구는 외국자원의 유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의 샘플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방지출이 국내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자본형성효과(capital formation effect)로,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소로 사적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방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과 총 투자 규모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예산사용상의 제약과 축적된 자본 및 자연자원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¹³⁾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은 소득세, 재정적자, 화폐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방부문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조세부담이나 재정적자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 생산잠재력(future productive capacity)을 결정하는 것이 저축(또한 투자)라고 한다면, 저축규모가 주어졌을 경우 국방부문에 대한 지출 증대는 장래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축적된 자본 및 부존 자원의 선점에 따른 상충효과는 보다 명확하다. 군사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과 같은 자본재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나 에너지 등은 민간경제부문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군사비 지출과 민간투자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¹⁴⁾

13) Heo, Uk, "Modeling the Defense-Growth Relationship around the Glob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5, October 1998, pp. 637~657.

군사비 지출이 투자와 자본형성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⁵⁾

세 번째는 국제수지나 수출지향적 성장모형(*export-led growth model*)을 통한 접근방식이다. 이 모형에서 주장하는 것은 군사비 지출이 그 국가에서 가장 활동적인 분야(*dynamic sectors*)에서 사용할 자원과 재능을 고갈시켜 수출증대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¹⁶⁾ 이로 인해서 대외무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화폐의 구매력 약화, 구조적인 실업, 만성적인 무역수지의 적자 등의 부정적인 과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일련의 학자그룹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후속 연구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⁷⁾

-
- 14) 인도, 대만, 중동의 국가들에 대한 아래의 연구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Chan, Steve, "Defense Burden and Economic Growth: unravelling the Taiwanese enig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1988, pp. 913~20 ; Faini, Ricardo, Patricia Arnez, and Lance Taylor, "Defense Spending, Economic Structure and Growth: evidence among countries and over tim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2, 1984, pp. 487~98 ; Lebovic, James H. and Ashfaq Ishaq, "Military Burden, Security Needs, and Economic Growth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1, 1987. pp. 106~38.
 - 15) Smith, Ron P. and George Georgiou, "Assessing the Effect of Military Expenditure on OECD Economies: a survey," *Arms Control*, Vol. 4, 1983, pp. 3~15. Chan(1992, p. 4)에서 재 인용.
 - 16)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Rothschild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Rothschild, Kurt W., "Military Expenditure, Exports and Growth," *Kyklos*, Vol. 26, 1973, pp. 803~14.
 - 17)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이 대외무역에서의 경쟁력과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국방비 지출이 수출확대나 수출품목의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han(1992), 앞의 책, p. 5.

마지막으로 기술대체모형(technological displacement model)을 들 수 있는데, 군사부문에 대한 연구개발(R&D)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인재를 빼내감에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나아가서는 민간경제부문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된 Benoit의 국방부문을 통한 현대화 촉진 효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나 수출지향적 성장모형을 통한 접근방식과와 같이 이러한 주장을 명쾌하게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분야에서 군사부문과 민간부문간에는 장기적인 상충관계(long-term trade-of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⁸⁾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분석방법 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국방건설을 위한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투입-산출분석 방법: 유효수효이론의 범주 안에서 국방비 지출이 관련효과를 분석하여 군비증강 및 군비축소가 생산, 국민소득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② 승수효과분석 방법: 국가별 거시모형을 통하여 정부지출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국방비 지출의 변화가 생산, 국민소득 및 고용 등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③ 국가간 횡단분석 방법: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 및 기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¹⁹⁾ 이들 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²⁰⁾

18) Chan(1992), 앞의 글, p. 5.

19) 황의각, “국방비의 국민경제적 영향,” 『국방논집』, 제15호, 1991, p. 29.

20) Antonakis, Nicholas, “Gun verse Butter: a multisectoral approach to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with evidence from Greece, 1960~1993,”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4, August 1999, pp. 501~20.

첫째, 국가간 횡단분석(intercountry cross-sect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조건 지우는 변수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분석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과 관련된 한계점²¹⁾들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다른 표본 및 통계자료의 사용(variations in samples and databases used)과 분석대상 기간의 차이(differences in time periods examined)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direction)과 강도(intensity)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표본의 구성에 따라서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서 세운 모형의 차이(differences in specificational choices adopted)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설명변수들의 구성을 임의적으로 합리화시키는(ad hoc model) 경우도 있고,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며, 때로는 이론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결과는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및 그에 따른 강조점 그리고 사용된 분석방법의 차이에 서로 상이한 결과 도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21)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으로는 국가간에 설명계수의 이질성(heterogeneity of slope coefficients)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수렴도 검사(convergence test)가 잘못된 결과를 유도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의 통계를 횡단으로 회귀분석(cross-country regression) 한다는 것은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설명변수의 “평균적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인과관계 검사(causality test)의 관점에서 볼 때, 평균적 효과가 갖는 한계성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의 패턴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onakis, Nicholas, 앞의 논문, p. 502.

점에서 Antonakis(1999)의 제안은 분석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²²⁾ 즉, 특정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그 국가 고유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②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방향성(direction of the growth effect of military spending)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③ 국가간의 횡단분석보다는 양자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사회주의국가만을 대상으로 군수산업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비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한 방편으로 먼저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andler and Hartley(1995)는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²³⁾

22) Antonakis, Nicholas, 앞의 논문, p. 503.

23) Sandler, Todd and Keith Hartley, *The Economics of Defens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201~2.

Sandler and Hartley의 논점을 기초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창출 효과: 소비와 투자 수요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국방비 지출은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불균형상태(disequilibrium in the economy)에 있을 경우에만 유효수요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불균형상태에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비 및 투자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국방건설에 따른 유효수요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술도입 및 전파 효과: 국방부문의 기술개발 및 도입이 민간부문으로 전파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효과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첨단군사기술분야는 그 성격상 민간경제부문과 격리되어 있어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의 군사기술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의 생산과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방부문의 기술이 민간경제부문에 도입 및 파급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공재(public goods) 공급 효과: 국방비 지출은 그 일부가 도로, 공항, 항만, 통신망의 건설 등 공공재 형태에 사용됨으로써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효과는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서도 군사부문의 예산이 공공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개연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대규모 건설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국방비 지출의 공공재 공급 확대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 국방부문에 근무하는 인적자원에게 영양공급과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인적자본의 질을 제고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들이 민간경제분야에 재투입되는 경우 민간경제의 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방비 지출의 건강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는 주로 개도국의 경우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난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북한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안보환경 개선 효과: 국방비 지출은 국내외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국내 투자환경은 시장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종종 해외 자본의 유입은 국제사회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효과는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병영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국방비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외국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민간투자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국방부문에 투입된 자원만큼 일반경제의 투자 재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군사부문과 민간투자가 결합관계에 있는 경우, 군사부문의 지출 증대로 인한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군수물자의 수입은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의 도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처럼 제한된 국내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경우 투자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국방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합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위축 효과: 국방부문이 연구개발(R&D)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용(轉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방부문의 연구개발 결과가 민간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개발 성과가 전파·응용되는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점과, 국방부문에서 발견되는 연구성과의 상당 부분이 민간부문에서 응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순효과(net effect)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출부문의 가용 자원 축소 효과: 수출부문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진기술과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문의 지출은 보다 생산적인 수출부문에서 사용할 자원을 전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수출부문은 경제의

어느 부문보다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서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창출해 낸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방비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²⁴⁾ 북한의 경우 수출부문이 국방부문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나, 수출부문의 활성화를 제한함으로써 민간경제부문에 필요한 선진기술을 도입할 기회가 축소되는 효과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비효율적 관료제도의 비중 확대 효과: 국방부문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관료체제가 경제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업부문을 제외한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문의 비중이 확대된다고 해서 경제성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효과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경우 국방비 지출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기술도입 및 전과 효과, 공공재 공급 효과,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연구개발부문이 포함된 민간의 투자 구축효과와 수출부문의 가용자원 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 이 같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의 이론들은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북한의

24) 군사비 지출은 해외자본의 유입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Loony, R. E., and P. Frederiksen, "Defense Expenditures, External Public Debt and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3, 1986, pp. 329~37.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 상황에 적합한 이론과 모형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군수산업 건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가. 군수산업 건설의 필요성: 전시에 대비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방 초기부터 절실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은 조선이 일제치하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빈약한 군사력과 무기체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1948년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병기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²⁵⁾ 군수산업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전후 복구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는데서 전쟁의 경험을 참작하여 군수공업을 계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의하여 심히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안정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전반적복구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짧은 시일에 효과를 나타내어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할수 있는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⁶⁾

25)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1949.10.31),” 『김일성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6.

26)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1952.4.2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88~89.

이와 함께 북한은 자체의 ‘병기공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에 대한 연구사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정세와 북한의 지형 및 체형에 적합한 무기 생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병기공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에 제국주의가 존재하고있는 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병기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으로 보아 자체의 병기공업토대를 튼튼히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기공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모든 병기를 다 자체로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려는데 있는 것만큼 여기에 맞게 병기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병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쟁 경험으로 보아 각종 보병용병기와 통신기재, 보급기재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²⁷⁾

이에 따라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과정에서 공장과 기업소의 재배치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전쟁기간 중에 나타난 공장과 기업소의 지나친 집중과 분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국방상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전시상태에서도 군수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산악지방이나 지하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27) 김일성,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1952.6.1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23.

공업배치에서는 전쟁의 경험을 고려하여 기업소의 지나친 집중을 피하는 것과 함께 전시조건에서 할 수 없이 기업소들을 지나치게 분산시킨 것을 다시 바로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⁸⁾

전쟁경험에 비추어 공업배치의 불합리성을 퇴치하고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군수품생산을 더 확대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일제놈들이 략탈하기 편리하게 주로 해안선일대에 배치하였던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가 있는 곳으로, 수송에 편리하고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쉬운 곳으로, 국방상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시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²⁹⁾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적은 밑천을 가지고 빨리 복구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공장, 기업소들은 원위치에 복구건설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원료조건과 교통조건, 국방상 요구와 소비지를 충분히 타산하여 합리적인 지대에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³⁰⁾

1951년부터 지하에 기계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선반, 원동기, 광산기계, 자동차부속품, 뿔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소기계들과 부속품들을 생산 할 수 있는 지하 공장들이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 지하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원수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조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 지하에 공장을 건설해놓으면 적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폭격을 하여도 전시생산을 계속 보장할 수 있습니다.³¹⁾

28)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1952.4.2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88~189.

29) 김일성,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이다(1952.6.18),”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40.

30) 김일성, “전후경제복구건설방향에 대하여(1953.6.5),”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506~7.

31) 김일성,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간부군대로 만들자(1954.5.27),”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33~34.

이와 함께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기계공업과 금속공업부문의 공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수산업의 군수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일반경제부문 공장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북한의 중공업부문 공장의 생산체계가 군산복합체적인 특성을 갖게된 발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다 군사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때 이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힘도 약했고 기술도 어렸고 모든것이 모자랐습니다. 총을 자체로 많이 만들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총을 제때에 전선에 보내줄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류탄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기계공업, 금속공업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다 전쟁에 필요한것을 만들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전시에 쓸수 있는 예비를 미리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³²⁾

지방공업 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도 국방력 강화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산력을 지방 여러 곳에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도시에 있는 공장들이 공습으로 파괴되더라도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김일성,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 하자(1963.10.5),”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47.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합니다. ... 국방력의 강화는 다만 무력을 강화하는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전시조건에서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생산력을 적당하게 배치하는것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도시에만 공장을 집중시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그것들을 옮기기도 힘들고 적의 공습이나 당하면 한꺼번에 다 마사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 방방곡곡에다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여놓으면 전시에 도시의 중앙공업이 마사져도 능히 먹고 입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³³⁾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상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중소규모의 공장들을 많이 차려놓으면 전쟁시기 도시에 있는 큰 공장들이 마사진다해도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전쟁물자를 충당할수 있으며 지방들에서 자체로 인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³⁴⁾

나.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의 관계: 상충성과 보완성

김일성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산업 중시 정책이 일정부분 경제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후 북한은 경제시설을 복구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전

33) 김일성,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1962.8.8),” 『김일성저작집』 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54.

34) 김일성,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0.2.27),”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

쟁의 와중에서 많은 인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국방부문에 많은 젊은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문이 인적자원의 배분의 측면에서 일반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적지 않은 수의 로력자를 잃었을뿐만 아니라 현재 정전일따름이고 아직 완전한 평화가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역도가 새 전쟁 도발에 날뛰고있는것만큼 계속 필요한 수의 청장년들을 국방에 돌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건설 하려니까 자연히 로력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³⁵⁾

또한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국방건설이 경제건설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국방건설에 대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일반경제부문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두가지 어려운 일을 동시에 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있으며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다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이 두가지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병행시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력한 공업을 창설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강대한 국방력을 가질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35)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1.30),” 『김일성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4~5.

우리 인민이 안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인구의 비례로 보아 우리는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서도 군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면서 동시에 국방건설에 막대한 자재와 력량을 돌리고있습니다. 동무들이 판 갱도에는 굉장한 량의 철재와 세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기자재를 가지고 공장이나 주택을 건설한다면 대단할것입니다.³⁶⁾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국방건설에 돌리는 자금을 경제건설에 돌린다면 경공업공장들을 더 건설하여 생활필수품도 많이 만들어내고 살림집도 더 지어 인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³⁷⁾

1965년에는 신년사를 통해서 1962년 이후 국방력 강화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7개년계획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발전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부진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1970년대 와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희생하면서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 7개년경제계획(1961~1967)이 3년간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하여 7개년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목표치인 18%에 5.2% 부족한 12.8%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경공업부문에 투자할 자금을 군수산업부문으로 전용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하고 있다.

36)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1963.2.8),”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28.

37)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1969.10.27),” 『김일성저작집』 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54.

최근 2~3년동안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예견하였던것보다 일정하게 지연된것은 사실입니다.³⁸⁾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7개년계획수행을 3년동안 연기하고 국방건설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³⁹⁾

원래 7개년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하여 1967년에 끝내야 할것이였으나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하여졌기때문에 더 연장하여 끝냈습니다. ... 우리가 이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⁴⁰⁾

우리는 1966년에 당대표자회를 열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인 많은 자금과 자재를 돌리기 위하여 7개년계획수행을 3년동안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가 비록 7개년계획을 10년동안에 수행하였지만 우리의 경제는 매우 빠른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전기간에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평균 12.8%씩 장성하였습니다. 우리가 7개년계획을 세울 때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8%씩 장성시킬것을 예견하였으나 국방건설에 추가적으로 큰 힘을 돌리다보니 ...⁴¹⁾

38) 김일성, “신년사(1965.1.1),”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8.

39) 김일성,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1.12.2),”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09.

4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1971.12.2),”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4~5.

41) 김일성,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한 담화(1974.3.2),”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4.

7개년계획을 3년 늦어 완수한것은 당시 조성되었던 정세와 관련되어있습니다. ... 전민을 무장시키려고 하니 총이 수백만정이나 요구되었는데 이 많은 총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로 무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자체로 무기를 만들자니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지장을 받으면서도 경공업부문에 투자하려던 자금을 무기를 생산하는데 돌렸습니다. 만일 그때 국방공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돌리지 않고 본래의 계획대로 경공업을 발전시켰더라면 우리 인민들은 지금 훨씬 더 잘살게 되었을것입니다.⁴²⁾

김일성은 또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군축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서 군대를 줄이면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던 많은 인력을 생산과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군대를 줄이게 되면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국가자금을 돌릴수 있을뿐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많은 리득을 볼수 있습니다. 군대를 줄이면 군대를 복무하던 많은 청장년들이 로력전선에 참가하게 되므로 공장과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할수 있고 지하자원도 더 많이 개발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로부터 얻는 리득은 국방비를 줄여 인민생활에 돌리는데서 얻는 리득의 몇배에 달하게 될것입니다.⁴³⁾

1990년대 와서는 핵무기개발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일으킨 상황에

42) 김일성,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과 한 담화(1975.3.5),” 「김일성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159~60.

43) 김일성,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 한 담화(1972.6.21),”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27.

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방력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김일성은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상충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주로 경공업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서 전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자체의 힘으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다보니 부담이 크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군수공장들을 다 경공업공장으로 전환하고 국방건설에 돌리는 자금과 자재를 인민 생활을 높이는데 돌린다면 우리 인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살겠다고 국방공업을 소홀히 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곤난을 좀 겪고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방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⁴⁴⁾

국방건설이 경제발전과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과 함께 김일성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국방력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44)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1993.12.8),” 『김일성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84.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고 다같이 치료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하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기본조건으로 될뿐아니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⁴⁵⁾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제력을 강화하는것은 곧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으로 됩니다. 왜냐 하면 튼튼한 경제토대가 있어야만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필요한것을 자체로 만들어 낼수 있기때문입니다.⁴⁶⁾

다.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 공업부문별

북한은 중공업 발전이 군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인식하고 중공업 발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였다. ‘병기공업’을 발전시키자는 연설에서 김일성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나라의 중공업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병기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⁴⁷⁾고 역설한 것이다. 김일성은 각종 연설을 통해서 각 공업부문별 과업을 제시하면서 군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공업분야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45) 김일성, “인민주권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자 (1967.11.11),”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49.

46) 김일성,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1968.4.13),”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54.

47) 김일성,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1961.5.28),” 『김일성저작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2.

(1) 금속공업

북한은 군수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부문을 금속공업부문으로 인식하고 군수산업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강재를 충분히 생산·공급할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점차 고급 금속제품의 생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유색금속생산을 늘리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자체로 각종 무기와 포탄, 총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연, 동을 비롯한 유색금속이 많아야 합니다.⁴⁸⁾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늘여 국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동을 비롯한 유색금속이 없이는 포탄과 탄약도 만들 수 없고 총신기재도 만들 수 없습니다.⁴⁹⁾

강철과 선철 생산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습니다. 기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여도 철강재가 있어야 하고 무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여도 강철과 선철이 있어야 합니다.⁵⁰⁾

경금속과 순금속, 합금강 생산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한계단 더 높은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⁵¹⁾

48) 김일성,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1950.2.14),” 『김일성 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92~93.

49) 김일성, “유색금속생산을 늘일데 대하여(1950.3.28),” 『김일성 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58.

50) 김일성,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1968.3.21),” 『김일성 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90.

51)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1968.10.2),” 『김일성 저작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

금속공업부문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화벌이를 통해서 군수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수입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먼저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늘여야 나라의 기술적진보를 촉진할수 있으며 외화를 많이 벌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 있습니다.⁵²⁾

1980년대에 와서는 군수공장에서 소요되는 강재의 자체생산을 통한 물량 확보를 강조하게 된다. 군수부문에서 자체의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는 군수산업부문에서의 수요가 점차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일반산업부문에서 제대로 공급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금속공장들에서 군수공장들에 필요한 합금강소재도 다 생산하여 주기 곤란합니다. 금속공장들에서는 군수공장들에서 요구하는 합금강소재가 생산조직을 하기도 복잡하고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잘 생산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금속공장들에서 합금강소재를 제대로 생산해주지 않으면 자체로라도 생산하여 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조직사업을 잘하면 필요한 합금강소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합금강소재를 비롯하여 군수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자체로 생산하여 쓰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⁵³⁾

52) 김일성, “강원도당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1972.3.23),”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04.

53) 김일성, “채취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부문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1984.12.21),”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24~25.

(2) 기계제작공업

북한은 기계제작산업이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공업화 발전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부문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의 발전을 강조해 왔다.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은 우리 나라의 장래 공업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되며 국방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한편으로는 공작기계를 외국에서 다량으로 수입하며 다른편으로는 국내에서 자체로 공작기계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⁵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기계공업의 역할은 1966년 10월 당대표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계공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의 노선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기계공업부문이 완수해야할 구체적인 과업으로 대형군수기계의 생산 및 필요한 금속재료의 자체 해결 노력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54)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1953.8.5),”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0.

기계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문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중공업이 공업의 기초라면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심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우리가 자주로선, 다시 말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견지하려면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기계공업만 발전시키면 별의별 무기들을 다 만들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 1970년까지 7개년계획의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기계공업에 달려있으며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과 국방력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기계공업에 달려있습니다.⁵⁵⁾

우리는 기계공업부문지도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없애고 그들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⁵⁶⁾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기계공업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공작기계의 증산을 통한 군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공작기계의 품종 확대를 위한 사업에 군수공장의 참여를 촉구하게 된다. 제2기계공업성으로⁵⁷⁾ 하여금 공작기계의 품종을 확대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공작기계 생산공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5) 김일성, “전국기계공업부문일군회의에서한 결론(1967.1.20),”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3~46.

56) 김일성,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1968.3.21),”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94.

57) 제2기계공업성은 제3차 내각(1962.10.23) 출범 시 기존의 기계공업성에서 분리 신설되었는데, 1970년대 초 군수산업부문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군수공업을 전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작기계생산을 늘이는것은 국방건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적들과 대치하여있는 조건에서 경제건설을 잘할뿐아니라 국방건설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 프락또르공장, 자동차공장, 건설기계공장, 군수공장을 비롯한 큰 기계공장들에 주는 공작기계들은 다 성능이 좋고 정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지 않고 몇가지 공작기계만 생산하여가지고서는 기종간의 균형을 맞출수 없습니다. ... 제2기계공업성에서도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생산을 부하가 많이 걸린 공장에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공장에서는 할수 있을것입니다. 제2기계공업성에서 공작기계를 생산하면 자체의 공장을 늘이는데도 좋을것입니다⁵⁸⁾

(3) 채취공업

공업부문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채취공업에 대한 북한의 강조는 금속공업부문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이를 기초로 하는 기계공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분야의 생산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방공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광산과 탄광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광석과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굴진을 앞세우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광석을 더 많

58) 김일성,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자(1971.10.9),”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411~16.

이 캐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유색금속광석을 많이 캐내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광석을 많이 캐내야 외화도 많이 벌 수 있고 군수공업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⁵⁹⁾

(4) 자동차공업

북한은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국방력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동차생산공장에서 군대에 상당한 양의 자동차를 공급해 줄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생산을 늘이는것은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해서뿐 아니라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강재사정이 긴장하여 자동차를 얼마 생산하지 못하다보니 자동차를 인민군대에도 주지 못하고 농촌에도 보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올해 9월부터 한달에 《승리-58》 자동차와 《승리-61》 자동차를 500대, 《자주호》 자동차를 50대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승리-58》 자동차와 《승리-61》 자동차를 다음해 2월까지 3,000대 생산하여 인민군대에 주어야 하겠습니다.⁶⁰⁾

라. 군수산업 건설과 대외무역

북한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충분히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59) 김일성,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1968.3.21),”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94.

60) 김일성, “올해 농사를 잘 결속지으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1976.6.22),” 『김일성저작집』 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203.

위해서는 외화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외화를 벌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해방후 일제로부터 넘겨받은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로선을 견지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공업은 아직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생산수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생산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사들여와야 하며 그러자면 외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⁶¹⁾

북한은 1990년에 와서 무역제일주의를 통해 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국방건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수부문의 수출공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무역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우리는 지난 기간 자체의 힘으로 국방공업을 건설하느라고 거기에 힘을 넣다보니 수출공업을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출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수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⁶²⁾

61)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1958.9.25),”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45.

62) 김일성,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1990.5.28),” 『김일성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35.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이 적지 않음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농사를 지어야 쌀을 먹는 것 아닙니까? 로켓연구해서 몇 억 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할 수 있습니까? ... 수리아와 이란에 로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⁶³⁾ 지속된 경제난으로 수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무기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활동이 1980년대 후반의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는 한 북한당국은 무기수출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이유에서 적정수준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한 북한은 무기수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군수산업 건설과 과학기술개발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성과 함께 군수산업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 각분야에서 이를 강조해오고 있다.

인민경제의 기초적공업이며 군사상 가장 중요한 공업인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용광로리용을 더욱 개선할데에 대한 리론적이며 실천적인 연구, 평로와 전기로에서 고속도용해법을 받아들이고 새로 베썬마제강법을 도입하며 특수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병기를 많

63) 중앙일보, 2000. 8.14

이 생산하기 위하여 정밀기계, 기구, 공구 생산에 대한 선진리론과 기술을 배우며 그것을 생산에 빨리 받아들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 화학공업에서는 국내의 모든 원천을 리용하여 공업용 폭약과 군용 폭약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지 못한 조건에서 합북탄전의 갈탄을 원료로 하여 석탄액화공업을 창설하는 것은 비단 과학, 기술적으로 흥미를 끄는 문제일뿐만아니라 우리의 인민경제, 특히 전시경제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전기절연재료, 고급도료, 합성수지, 합성고무를 비롯한 고급유기합성제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⁶⁴⁾

북한은 1960년대 초반 해도 새로운 품종의 병기를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던 것에서, 196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전자공학의 발전을 통한 무기의 현대화·자동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병기공업부문에서 품종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에서 요구하는 무기와 탄약들을 될수 있는대로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단 유사시에 전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오랜 병기생산경험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품종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⁶⁵⁾

국방공업을 위하여서도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

64)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1952.4.2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90~91.

65) 김일성,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1961.5.28),”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7.

래식무기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 현대적인 자동화무기들을 많이 생산하려면 자동화계통, 전자공학을 발전시켜야합니다.⁶⁶⁾

1970년대 중반에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인재의 양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들 분야가 발전해야 무기와 군사장비의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대학들에서 학문적 발전과 함께 기술자 육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다.

대학들에서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인재를 많이 키워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야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도 더욱더 현대화할수 있습니다. ...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대학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데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기본을 두고 학부도 꾸리고 교원들도 꾸려 이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⁶⁷⁾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북한은 과학발전의 세계적인 추세와 국가의

66)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1968.10.2),” 『김일성저작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

67) 김일성,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6.11.28),” 『김일성저작집』 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472~74.

현실적인 요구에 맞추어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의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군수산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전자공업의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전(現代戰)은 전과전, 전자전이기 때문에 전자공업의 발전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급선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앞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과학발전의 세계적추세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하여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걸리고있는 여러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푸는데서나 제3차 7개년계획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전자공학과 생물학, 열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 전자공업은 공산주의공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자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전쟁은 전과전, 전자전입니다. 지금 미제가 떠들어대고있는 《별세계전쟁》 계획도 전자전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자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할수 있습니다.⁶⁸⁾

68) 김일성, “과학, 교육 사업과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88.3.7),” 『김일성저작집』 4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5~36.

III.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48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로, 군수산업의 확장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2단계는 1960년대로 군수산업의 기반을 확충한 기간인 바, 이 시기 북한은 국방과 경제건설의 동시발전이라는 방침을 수립하고 국방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였으며, '4대군사노선'하에서 전 국민의 무장화와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토의 요새화라는 기치하에서 병기공장의 지하화를 추진하였다. 3단계는 1970년대로 '전국적인 방어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각종 무기의 자주화·기계화에 주력하였다. 4단계는 1980~90년대로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깨닫고 첨단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1. 준비단계: 해방 후 1950년대까지

북한의 군수산업은 해방 후 전쟁 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병기공장을 복구하고, 소련으로부터 자재와 기술지원을 받아 소화기(小火器)와 탄약을 생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⁶⁹⁾ 군수산업 발전을 추진하던 초창기, 북한은 선발 군수공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공장들을 점차 독립적인 공장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식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9) 이명수, 『북한의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14.

이를 위해서 북한은 선발 군수공장을 ‘모체공장,’ ‘간부공장’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군수산업의 확대·발전과정에서 이들 선발 공장들이 군수산업을 조직지도할 수 있는 기술간부와 숙련공 및 관리간부를 양성해 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한 김일성의 발언을 살펴보자.

우리는 65호공장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65호공장은 우리 나라 군수산업의 모체공장으로, 간부공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개별적인 부속품을 만드는 직장들을 앞으로는 독립적인 하나의 공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더 많은 공장들을 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5호공장에서는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확대발전될 우리 나라 군수산업을 조직지도할 수 있는 기술간부들과 숙련공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5호공장에서는 지금부터 좋은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 그들을 모두다 훌륭한 숙련공으로 키워야 하며 더 많은 기술자들과 관리간부들을 키워내야 하겠습니다.⁷⁰⁾

북한은 한국전쟁이 개시되기 전 기술자들을 소련으로 보내 군수산업의 기술적 훈련과정을 이수시킨 후, 무기제작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당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무기는 7.62mm 기관단총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¹⁾ 그러나 전쟁기간 중 북한의 군사력은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군사

70)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1949.10.31),” 『김일성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9.

71) 김철환, “북한의 군수산업실태 및 민수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V): 북한의 군사분야』, 서울: 통일원, 1993, p. 249.

력의 발전상황을 설명한 김일성의 발언 중 무기를 공급해준 “로동계급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무기가 전쟁기간 중에 이들 국가에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의 기간에 우리의 무장은 기관단총 144%, 기관총 124%, 포 128%, 박격포 140%, 고사포 218%, 전차와 자동포 182%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보병의 자동무기화력은 141%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부대는 장기전을 진행할수 있는 충분한 군수기재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대를 무장시켜주는 로동계급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것입니다.⁷²⁾

이와 함께 북한은 전쟁이 다소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동안 파괴된 군수공장들을 복구·확장하는 한편, 전쟁의 확대에 대비하는 방편으로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자체의 군수기지를 건설하는데 진력하면서 공업부문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특히 무기의 자체 생산능력 확보를 중시하게 되는데, 무기공급을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북한은 지하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무기생산을 늘여 무기에 대한 전선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하며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파괴된 공장과 운수기재들을 복구정비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⁷³⁾

우리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파괴된 기계공장들과 병기공장들을 복구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기계공장과 병기공장들을 건설

72)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12.24),”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62.

73) 김일성, “현시기 당단체들과 인민정권기관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52.2.15),”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80.

하였으며 지금도 여러개의 기계공장과 병기공장들을 건설하고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무기들을 형제나라들에서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나라들의 원조만 믿고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설비와 무기를 자체로 생산하여야 하며 공업에서 자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더 확대될수도 있습니다. ... 우리는 자동차부속품공장을 자동차공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지하에 공작기계공장, 병기공장, 엔진공장, 공구공장, 화학공장들과 큰 제강소도 건설하여야 합니다. ... 당의 의도대로 기계제작공업과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며 전 시경제건설을 잘하려면 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⁷⁴⁾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은 피폐한 경제를 복구하는데 몰두하면서 중공업의 우선적 복구를 통한 공업화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철공업, 기계공업, 병기공업, 광업, 전력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및 방직공업 등의 우선적 복구·발전을 강조하게 된다. 군수산업의 발전이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군사부문에만 몰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직후 북한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업부문의 우선적인 투자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목표가 ‘국방력이 강한 공업국가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공업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시기에 우리는 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켰으며 군수공업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국방력이 강한 공업국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⁷⁵⁾

74) 김일성, “당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며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할데 대하여(1953.6.4),”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98.

이와 함께 북한은 군수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자강도에서 기계공업의 발전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1국 산하의 군수용 기계공장들의 생산 증대 노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군수공장들에게는 가동률을 배가시켜 일반경제 부문에서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과업이 제시되었다. 북한의 군수산업이 갖는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도 군수부문의 공장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강도의 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자강도에 있는 제1국산하 기계공장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당에서는 제1국산하의 기계공장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이 공장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있습니다. ... 이 공장 일군들은 군수품을 생산한다는 특수성을 내걸고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잘 받으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험하게 할것만 생각하면서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리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제1국산하의 기계공장들에 예비가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76호공장에 가보니 그 공장에서는 100여대의 기계를 놀리고있었습니다. 26호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제1국산하 기계공장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군수품생산과제를 앞당겨수행하고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⁷⁶⁾

1950년대 북한의 병기생산은 개인화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75)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1954.12.23),” 『김일성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87.

76) 김일성, “자강도 당단체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1958.8.5),”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76~78.

소련의 자재 및 기술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소련과 합작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생산품목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총, 대전차무기, 무반동총, 트럭 등이 포함되었다. 이 라이선스 계약은 1967년까지 연장되었는데 북한 군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로 전력상의 공백이 생기게 되자 이를 보충할 목적에서 1959년 1월 노동적위대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위 국방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⁷⁷⁾

2. 기반구축단계: 1960년대

북한에서 군수산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군수공업부문에서 일하는 핵심 노동자, 기술자 및 관련 공장·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모인 ‘전국병기공업부문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군수산업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군수산업의 발전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거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군수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방어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전쟁기간 중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된 것도 자체의 군수산업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력을 강화하고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 김일성은 정전 직후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군수산업에 주력한다는 과업을 제시한 바 있음을 밝히면서 튼튼한 중공업 토대를 기초로 군수산업을 조속히 발전시킬 것을 강

77) 이명수, 앞의 책, p. 18.

조하고 나섰다.

우리 당은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전후에 인민 무력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는 병기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우리는 벌써 정전직후에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면서 병기공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무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군대뿐만아니라 전체 인민을 다 무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나라의 중공업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병기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⁷⁸⁾

같은 연설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자체의 무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체의 방위력을 강력하게 확보해야 마음놓고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민수산업부문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자체의 무력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병기생산에 쓸 강재를 민수생산에 돌린다면 그만큼 트랙또르나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트랙또르와 기계를 많이 생산해놓아도 적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써먹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해동안 힘을 넣어 적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방위력을 강화해놓아야 마음놓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병력을 증강하고있으며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78) 김일성,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1961.5.28),” 『김일성저작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2.

군비를 계속 확장하고있는 최근 정세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도록 병기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⁷⁹⁾

김일성은 또한 군수산업부문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으로 무기생산의 증대, 무기의 질 제고, 그리고 새로운 품종의 무기 생산을 제시하였다. 무기생산을 배가함으로써 ‘전인민’을 무장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국방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병기공장들에서 짧은 기간에 생산을 2~3배 또는 그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로농적위대원들에게도 다 현대적인 무기를 메우며 나아가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다 무기를 메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기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높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새로운 품종의 병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병기공업부문에서 품종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에서 요구하는 무기와 탄약들을 될수 있는대로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단 유사시에 전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오랜 병기생산경험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품종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⁸⁰⁾

이와 함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무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하게 보장, ② 군수공장의 생산면적 이용률 제고, ③ 기술수준과 노동생산성 증대, ④ 군수공장을 ‘간

79) 김일성, 위의 글, p. 136.

80) 김일성, 위의 글, pp. 136~37.

부공장'으로 육성, ⑤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대열' 강화, ⑥ 엄격한 규율과 질서 수립, ⑦ 검사제도 강화, ⑧ 사상교양사업 강화 등이 그것이다.⁸¹⁾

이 중에서 자재공급 보장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제철소, 제강소 및 유색금속공장들에서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질 좋은 강재와 유색금속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국내자재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군수공업의 자력갱생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수준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강조한 이유는 전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력의 배치가 힘들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무기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수공장의 간부공장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간부와 기능공들을 군수공장 에서 별도로 양성해 두었다가 유사시 민수부문의 기계공장들을 군수 공장으로 전환시킬 때 그들을 바로 과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일단 유사시에 민수부문의 기계공장들에서 병기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²⁾

북한은 또한 군수산업의 발전 목표인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민군대의 기계화·자동화·화학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하여 군대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군사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군대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군인들의 군사기술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군대의 장비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기계화,

81) 김일성, 위의 글, pp. 137~46.

82) 김일성, 위의 글, p. 143.

자동화, 화학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전변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인민군대를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로 장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현대적무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높은 군사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자신의 군사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⁸³⁾

북한의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강화한다는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 방침은 1962년 12월에 소집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⁸⁴⁾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 우리 당은 이미 1962년에 소집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⁸⁵⁾

이 시기에 제시된 북한의 군사력 강화 방향은 ‘4대군사노선’으로

83) 김일성, “우리 나라의 경제와 몇가지 군사과업에 대하여(1961.12.25),” 『김일성저작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627.

84)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이 언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 지에 관하여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2년’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성저작집』에 나타난 발언에 따르면, 1962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4기 5차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당의 공식적인 노선으로 확정한 것은 ‘1966년 10월의 당대표자회’인 것으로 보인다.

85)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10.5),”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15.

알려진 ‘군대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 ‘군사진지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이다.⁸⁶⁾ ‘군대의 간부화’는, “매 전사들이 다 지휘관의 능력을 가지도록” 육성함을 의미하며, ‘무장의 현대화’는 최신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군사진지의 요새화’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어시설을 쌓는” 것을, ‘전인민의 무장화’는 전 국민을 무장·훈련시켜 유사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에는 나라의 모든 힘과 재산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⁷⁾

1965년 김일성은 각종 연설을 통해서⁸⁸⁾ “국제정세가 긴장하여지는데 따라⁸⁹⁾ 우리는 지난 몇해 동안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다소 차질을 빚게된 7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86) 이와 관련 김일성이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을 당의 공식적인 노선으로 결정(1966.10)한 이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4대군사노선’을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로 표현하고 있다.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권, 1983, p. 533.

87)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1964.2.27),” 『김일성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56~57.

88) 김일성,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1965.1.22), p. 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1965.4.14);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9.23), p. 482;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1965.10.10), p. 523, 공통: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89) 북한은 불리한 국제정세가 쿠바사태와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1965.1.22),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93.

국제정세가 긴장하여지는데 따라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는 할수없이 많은 자재와 자금, 많은 청장년로력을 동원하여 군수생산을 늘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 나라를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는 무기를 마련하여놓았기때문에 이제부터는 생산과 건설에 많은 힘을 넣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7개년계획이 어려운 과업인데다가 몇해동안 국방건설에 더 큰 힘을 돌리게 된 결과 앞으로 남은 기간에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이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⁹⁰⁾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잘 배합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가 두려워 경제건설을 잘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⁹¹⁾

이시기 북한은 국방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안보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경제부문의 발전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⁹²⁾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정책을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확정한 이후⁹³⁾ 북한은 이러한 노선의 당

90) 김일성,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1965.1.22), 위의 책, p. 93.
 91)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1965.10.10),” 위의 책, p. 523.
 92)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10.5),”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415~28.
 93) “1966년 10월에 있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내놓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당의 새로운 혁명적노선을 관철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왔습니다.”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2.

위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의 관철을 위한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던 초창기에는 국방건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⁹⁴⁾ 이에 북한은 새로운 ‘혁명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②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낙후와 침체를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고, “지난날보다 몇배, 몇십배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리마대진군운동’이다.⁹⁵⁾

이와 함께 국방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자위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제건설사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우리는 국방건설분야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하여 나라의 자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원조만 바라고있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94)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것은 긴장한 투쟁을 요하는 매우 어려운 과업입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무엇보다먼저 그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당안에서와 당밖에서 소극성과 침체성 그리고 동요하는자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한편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옹계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1967.6.20),”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16~17.

95)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나 국방건설분야에서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며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7.7.3),”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51.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자위의 정신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이미 쌓아놓은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수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것입니다.⁹⁶⁾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도 김일성은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모든 힘을 다하여 국방건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방건설이 국가사업의 최우선적 과제임을 강조한다.⁹⁷⁾ 국방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이므로,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경제부문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⁹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방건설이 국가사업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⁹⁾

96)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94~96.

97) “오늘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모든 힘을 다하여 국방건설을 지원하는것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1968.5.11),”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82.

98) 김일성,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돛을 맞이하여(1968.2.8),”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8.

99) “우리는 늘 한손에는 국방건설을, 다른 손에는 경제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경제건설을 넘두에 둘 때에는 국방건설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국방건설을 넘두에 둘 때에는 경제건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하나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긴장된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당에서 준 국방건설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전쟁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자재와 자금, 노동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당 정책과 노선에 대한 반대세력의 존재 및 자연재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경제건설에 일정부분 지장을 받더라도 국방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⁰⁰⁾

1960년대 북한의 무기생산은 주로 채래식 기본화기의 개발, 생산과 전체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양적 생산에 치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비반총포, 로켓트포 등을 중심으로 소련제와 중국제 무기를 주로 모방하여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기간 동안 현대적인 자동화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채래식 무기들의 생산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¹⁾

이 기간 중 북한은 국방과학원, 함흥분원을 설치하고 함흥의 2·8비날론공장과 흥남, 신의주, 청진, 아오지, 강계 등지에 화학무기를 위한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신경계, 호흡계, 피부계 등 채래식 화학무기를 양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65년에는 구소련으로부터 흑연 감속방식의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¹⁰²⁾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69.2.11),” 『김일성저작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51.

100)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1969.10.27),” 『김일성저작집』 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4~56.

101) 이명수, 앞의 책, pp. 20~21.

102) 정유진, “북한 군수산업실태와 운영,”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1997, pp. 84~85.

3. 확장단계: 1970년대

1970년 11월 2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제4차대회(1961.9) 이후의 9년을 결산하면서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으로써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 국방력강화에서 큰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동기간 동안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국방건설에 필요한 공업제품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한바 있다. 이와 함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년 동안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거둔 최대성으로 전국민의 무장화와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완성한 것을 꼽고 있다. 군수산업부문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지적한 김일성은 그러나 이러한 국방력 강화작업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국방공업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보총이나 몇 자루 생산하는 보잘것없는 군수공업이 있었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 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 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의 인민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것입니다. ...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

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¹⁰³⁾

같은 연설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전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과 ‘자위국방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군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김일성은 자체의 실정에 적합한 무기를 개발해 낼 것과 국가의 공업발전수준에 맞추어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⁰⁴⁾

또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전쟁준비에 나서야 된다고 역설하면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은 전시에든 생산이 가능하도록 경제체계를 개편하고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등이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10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11.2),”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6~57.

104)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에 따라 군사장비를 현대화하여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위의 글 pp. 294~95.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며 전시에
 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우리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할것입니다.¹⁰⁵⁾

1970년 12월말 다음해 경제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은 “다음해에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
 능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
 기를 비롯한 전투기술기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군수공장의 정비 강화 및 해당 노동자·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⁰⁶⁾ 또한 1971년 신년사를 통해
 서는 국방공업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군수계획지표들을 넘쳐수행하
 여 인민군대에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군수
 산업부문에서의 무기공급 확대를 촉구하였다.¹⁰⁷⁾

1970년대 초, 김일성은 경제·국방건설 병진정책으로 국방부문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 7개년경제계획(1961~1967)이 3년간 연장되었
 음을 밝히면서 그 결과 군수산업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¹⁰⁸⁾ 경제발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군수산업에 대한 집

105) 김일성, 위의 글 pp. 295~96.

106)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들을 잘 정비하여 은을 내게 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
 준을 높이는것입니다.” 김일성, “1971년 사업방향에 대하여(1970.12.28),”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63~64.

107) 김일성, “신년사(1971.1.1),”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9.

108)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
 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7개년계획수행을 3년동안 연
 기하고 국방건설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군수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71.12.2),”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09;

중투자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지만 군수산업의 기반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에 와서도 북한은 군수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의 질을 높이는 것과 현대적인 무기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와 함께 1970년대 초반부터 강조했던 전쟁준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한 점이다. 유사시 모든 주민이 무장하고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가 전쟁을 위한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은 질이 높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전쟁물자를 생산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유사시에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전쟁승리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¹⁰⁹⁾

1975년 9월 김일성은 6개년계획이 1년 4개월이나 조기에 완료되었

“원래 7개년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하여 1967년에 끝내야 할것이였으나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하여졌기때문에 더 연장하여 끝냈습니다. ...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았으며 이 로선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고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였습니다. 이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된것입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1971.12.2),”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4.

109) 김일성,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1975.2.17),” 『김일성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82~83.

다고 강조하는 자리에서 군수산업을 건설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슬회하기도 하였다. 군수산업의 기술자 부족과 필요한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¹¹⁰⁾ 1976년에 북한은 국방건설을 ‘인민경제계획의 4대과업’ 중의 하나로 설정하게 되는데 ‘국방건설’을 필두로 ‘인민경제부문간의 균형 달성,’ ‘외화문제 해결,’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이 4대과업으로 제시되었다.¹¹¹⁾

북한은 1970년대에도 군수산업의 확장을 지속하여 무기의 질을 높이고 중장비의 생산 및 각종 무기의 양적 증가와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자체전술 개념에 필요한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개발에 몰두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혁명’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서방으로부터 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북한의 군수산업은 항공 및 유도무기를 제외한 무기생산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모방 생산단계에서 자체 개발단계로 이행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²⁾

이 기간 중 북한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의 지상무기 생산과 잠

110) “병진로선을 관철하자고 하니 난관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서 무기를 만들수 있는 기술자도 부족하였습니다. 병진로선을 관철하자고 하니 그에 맞게 투자도 새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기계설비들도 많이 사와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국방공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갱생하여 자체로 만들수 있는 것은 자체로 만들고 자체로 만들수 없는것은 이 나라에서 한대 사오고 저 나라에서 한대 사다가 군수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고분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였습니다.” 김일성, “조국의 사회주의건설형편에 대하여(1975.9.26),” 『김일성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489~90.

111) “우리는 올해에 국방건설을 잘하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며 나라의 긴장한 외화문제를 풀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이 네가지 과업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 과업입니다. ...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4대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정무원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6.4.30),” 『김일성저작집』 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103~4.

112) 통일원 통일연수원,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서울: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pp. 37~38.

수정,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련 및 중국 제를 모방하여 방사포, 곡사포, 야포 및 자주포를 생산하였으며 중국 제 장갑차를 개조한 수륙양용차를 생산하였다. 또한 1960년대 도입한 유도무기의 정비기술을 기반으로 1970년대 말에는 AT-3(Sagger)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소련제 휴대용 지대공유도탄인 SA-7을 생산하였다. 함정 생산능력도 확대되어 각종 고속정, 소련제 KOMAR급 유도탄 경비정 및 천오백톤급 호위함과 R급 잠수함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¹¹³⁾

4. 고도화단계: 1980~90년대

1980년대는 북한이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에 치중하면서 첨단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동기간 중 북한은 각종 유도무기와 항공기 등을 조립 생산하였으며, 기술개발과 시설확장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 미사일 생산과 핵무기개발에 주력하여 특히 미사일 생산에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무기의 자체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킴에 따라서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그 동안 군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일반경제부문에서도 본보기로 삼아 나갈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자력갱생의 정신 실천과 제품의 질적 제고이다. 군수공장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1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 858 참조.

114) 북한연구소, 앞의 책, pp. 858~59.

을 발휘하여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대부분 자체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수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다른 부문들에 비해 질 좋은 상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성과는 철저한 품질감독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점은 북한의 군수산업부문이 설비와 자재의 자체적인 조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생산공정별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 군수공장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거의다 자체로 생산하여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공장에서는 종업원quel기모임을 가지고 모두 달라 붙어 압연설비도 만들어놓고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재를 다 자체로 생산하여 쓰고있습니다. 사실 군수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재를 다 자체로 만들어쓴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는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자고 하여도 팔아 주지 않기때문에 사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공장들에서는 몇개 밖에 쓰지 않는 소재도 자체로 생산하여 쓰고있습니다. 군수공장들에서는 당에서 언제까지 어떤 제품을 얼마 생산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합니다. 군수공장일군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 불수강관이나 불수강관, 규소강관을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을것입니다.¹¹⁵⁾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의 질은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군수공장들에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은 다 세계적수준에 올라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공장들과 같은 시기에 건설한 기계공장과 경공업공장을 비롯한

115) 김일성, “함경남도 경제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1980.7.10),”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87~88.

가공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같은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도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군수품의 질이 높은 것은 군수품에 대한 품질감독사업에서 강한 규률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군수공장들에서는 생산한 제품이 자그마한 부족점이 있어도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민수공업부문에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와 같이 모든 제품을 생산과정별로 품질감독일군들이 검사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민수공업부문에서는 생산과정별 검사를 자체로 하는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¹¹⁶⁾

1980년대 중반에 와서 북한은 국방건설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옹계 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경제건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건설에만 치중하여 국방건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주변의 정세에 맞추어 강약을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세는 국방건설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적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어 위협이 닥쳐온 때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적들의 도발책동으로 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

116) 김일성,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1.2.2),” 『김일성저작집』 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p. 11~17.

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¹¹⁷⁾

1990년대 들어와 급변한 국제정세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북한은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특히 더 강조하고 있다. “적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경제적붕쇄와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대와 군수부문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⁸⁾ 이에 따라서 구사회주의권 시장의 대부분을 상실함에 따라 경제난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수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자체의 힘으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다보니 부담이 크지 않을수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더 잘살겠다고 국방공업을 소홀히 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곤난을 좀 겪고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방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전국을 고슴도치와 같이 요새화하면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것입니다. 정무원과 해당 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내세운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¹¹⁹⁾

117)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1986.5.31),”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81.

118) “우리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면 적들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 요즘 적들이 남조선에 현대적인 대량살륙무기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놀래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먹어보려고 아무리 책동하여도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튼튼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불패입니다”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9~20.

이 기간 중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과 정밀무기의 생산에 진력한 결과, 북한은 1980년대에는 총포공장 17개소를 비롯하여 탄약공장 35개소, 전차·장갑차공장 5개소, 화생무기공장 8개소, 함정건조소 5개소, 항공기공장 9개소, 유도무기공장 3개소, 통신장비공장 5개소, 기타 공장 47개소 등 총 134개소의 병기공장을 보유하기에 이른다.¹²⁰⁾

그 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온 미사일 생산에 있어서,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AT-3 대전차 미사일의 생산과 SA-7 지대공유도탄의 조립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1980년대 중반에는 소련제 스킨드-B형 미사일을 도입하여 이를 모방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평양시 용성구역 소재 만경대 약전기계공장, 평양폐지공장, 평북 대관의 301호공장 등 미사일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1986년부터는 연간 50기의 지대지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93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1호’를 시험 발사하여 현재 작전 배치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인공위성의 궤도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비록 인공위성의 궤도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반체의 엔진연소와 단의 분리, 유도 등 제반 기능을 이상 없이 수행한 사실로 판단할 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북한은 현재 최대 사정거리가 2,000~2,5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1호’와 6,7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2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²¹⁾

독자적인 미사일 생산체계를 마련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해

119)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1993.12.8),” 『김일성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84.

1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명수, 앞의 책, pp. 24~25 참조.

121)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국방부, 1999, p. 46 참조.

외수출에 관심을 기울여 미사일을 수출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스커드 미사일을 중심으로 1992년까지 이란,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에 완제품 250여기 5억8천만달러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²⁾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56년 소련에 기술연수생을 파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에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에는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 등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다. 1980년에는 5메가와트급의 실험용 연구로 건설에 착공하였고 1986년 말에 본격가동을 시작하여 폐연료봉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에는 태천에 200메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의 완성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한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 보유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보여준 핵무기 제조연료인 플루토늄 추출능력에 미루어 초보적인 수준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³⁾

122) 또한 국회외무통상위에 제출된 통일부의 국정감사자료(1998.10.23)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등의 미사일 수출 중지 압력에 따라 지난 1993년 이후 미사일 직접 수출 대신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www.hani.co.kr/han/data/1981023/065nan07.html>

123) 국방부, 위의 책, p. 45 참조

IV. 군수산업 운용체계와 제2경제

1. 군수산업 운용 체계

가. 국방위원회

‘제2경제’로 지칭되는 북한의 군수산업은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당·내각·군의 3원적 체계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최고지도기관은 1992년 북한의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였으나, 헌법의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상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휘하는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부상하였다.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제102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와 군수공업부

그동안 북한 군수산업에 있어서 당은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왔다.¹²⁴⁾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¹²⁵⁾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산업과 관련된

124)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통일경제』, 1995년 8월호, p. 97.

125) 조선로동당 규약, 제3장 27조

정책결정에 있어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비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이후 당 군사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⁶⁾ 이밖에 노동당 비서국에 군수공업 담당비서가 있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하달된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를 산하 전문 부서인 군수공업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병호가 군수 담당비서와 군수공업부 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수공업부는 1970년대 중엽에 중앙당 안에 새로 조직되었는데, 1990년대 초까지는 기계사업부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93년 1월 1일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군수공업부로 개칭되었다. 군수공업부는 당의 군수공업정책 집행기관이다.

다.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

군수산업 부문의 생산은 모든 인민경제에 우선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해당 시기에 결정된 군수생산지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물자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이다. 약 150명 정도의 현역 군장교로 구성되어 있는 군수계획국은 실질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계획처, 자재계획처, 노동계획처, 재정계획처 등 7~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군수계획국은 각 군수생산기관에서 제출된 계획을 심의·조정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이

126) 백환기는 군수산업에 대한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위상이 국방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격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유진은 군수공업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은 아직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환기, “북한의 군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방연구』, 1996.6 ; 정유진, “북한 군수산업실태와 운영,”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1997 참조.

를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로 제출한다. 군수계획국에서 확정된 계획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되면 군사위원회는 최종 비준절차를 거친 뒤 명령으로 하달하게 된다.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된 지표들은 ‘명령지표’ 또는 ‘2경폰드’라고 불리며 전문 군수생산기관이나 민수품 생산기관들은 생산은 물론 자재·자금·기술인원 조달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무조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에 김정일의 지시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 다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¹²⁷⁾ 결국 일반경제부문의 생산은 군수품 생산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이 부족한 경제난의 와중에서도 군수품 생산에 인적·물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일반경제부문의 상황이 악화될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제2경제위원회

내각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산업분야에 있어서 최고 조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 직속기구인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생산·분배 및 대외무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인 전병호(중앙당 군수공업부 담당 비서)와 김철만이 최고책임자로 알려 지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제2경제위원회는 8개의 총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제2과학원과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대외경제총국 및 자재공급을 담당하는 자재상사를 두고 있다.

127) 정유진, 앞의 글, p. 90.

<표 1> 제2경제위원회 기구

구분	기구명	주요 업무
8국	종합계획국	군수공업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총괄적 계획
	제1총국	소형무기 및 탄약생산, 군사시설 운용
	제2총국	전차·장갑차 생산
	제3총국	대포·고사포·자주로켓포·다연장로켓포 생산
	제4총국	각종 미사일 생산
	제5총국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생산
	제6총국	작전함정 및 잠수정 생산
	제7총국	통신설비 및 비행기 생산
기타	제2자연과학원	군수물자의 연구·개발
	대외경제총국	생산에 필요한 물자 수입 및 외화벌이
	자재상사	자재의 수급

마.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군대의 유지에 필요한 물자 생산 및 파손된 무기의 수리를 중심으로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어 무기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민무력부내에서 군수 생산을 관리하는 부서로는 총참모부 장비관리국, 운수관리국, 검수국 과 후방총국 등이 있으며 총참모부 산하에 있는 제15국(기술총국)은 장비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총참모부 산하의 매봉총국(매봉

무역상사)은 미사일부품의 수출입을 책임지고 있으며 외국에 사무소를 둔 유일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이다.

총참모부 장비관리국은 장비와 기재의 수리를 위주로 하며 중무기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하에 순천탱크엔진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총참모부 운수관리국은 군용트럭과 기타 운전기재 및 그 부품을 생산하는데 산하에 갱생자동차공장, 316자동차공장, 919자동차부품공장등을 운영하고 있다. 총참모부 검수국은 일체의 무기와 군수품의 검사를 담당하며 계획에 의거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이를 해당 단위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수국은 군수품 생산을 맡은 일반 기업의 ‘일용분공장(직장)’들에 검수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후방총국은 군인들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피복, 신발, 의약품 및 전투식량 등을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하에 많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천의 107공장에서는 각종 낙하산을 제작하고 있으며, 신의주에 있는 115호공장은 군복제작을 삭주의 111호공장은 군화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이 밖에 미림특수부대용 전투식량 생산공장과 군용의약품 생산을 위해 나남제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 내각 산하 일반기업의 일용분공장

군수품 생산 전문공장이 아닌 내각 산하의 일반기업들에 군수품을 생산하는 분공장(또는 직장)을 설치, 제2경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이라고 부르며 무기류나 장비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들을 협동생산하고 있다. 이들 일용분공장은 인민경제 전반에 거미줄처럼 뻗어있어 수만개에 달하는 군수협동품들을 생산해 내

고 있으며, 군수공장들에서는 이 협동품들을 받아서 조립 생산한다. 협동품이 보장되지 않으면 군수생산 전반이 지연됨으로 민수부문의 군수체계에 대한 당군사위원회와 제2경제위원회, 국가정무원의 통제와 독촉은 대단하다고 한다. 군수협동품들에 대한 생산과제는 모두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되며, 제2경제위원회에서는 ‘일용생산지도국’이 협동품 생산공정을 지도하고, 정무원에서는 사무국에 방대한 기구를 두고 군수협동품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김정일의 지시로 제2경제, 정무원경제 산하의 책임일군들과 각 공장, 기업소 당비서와 지배인들의 참가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총화’ 회의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군수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단위의 일군들은 군수(軍需)건, 민수(民需)건 가리지 않고 경중에 따라 책벌을 받거나 즉결 군사재판에 회부된다.¹²⁸⁾ 이렇듯 일용분공장은 군수품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속은 내각 산하의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책임자가 군수품 생산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그 공장의 지배인은 민수용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한이 있어도 일용분공장의 계획 생산량을 완수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민수부문의 공장들은 일단 전기나 원료자재가 공급되면 군수생산계획부터 먼저 수행한 이후에야 인민경제계획을 걱정하게 된다고 한다.

내각의 위원회와 성들에서도 일용분공장들의 생산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제4국(또는 처)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부서는 행정적인 통제는 해당 위원회나 성에서 받지만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제2경제위원회와 무력부의 군수동원총국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용분공장이 기간산업에서부터 지방공업에 속

128) 원희, “북한 인민경제의 구조적 특징,” 『민족통일』, 2000년, 5월호.

하는 3급기업소(종업원 1,000명 미만)의 작은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용분공장이 설치된 공장·기업소의 수가 약 3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민경제부문에 필요한 민수용품 생산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난의 와중에서 필요한 연료·원료 및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여건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생산에 우선하다 보면 민수용 제품은 거의 생산할 수가 없어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방건설 우선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경제난이 누적된 최근에는 군수품 생산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제2경제

가. 형성과 발전 과정

북한의 군수산업이 명실공히 북한의 제2경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반적인 사업을 개편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북한은 소화기(小火器)의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박격포·무반동포·방사포·로켓포의 자체생산체제를 점차 갖추어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군수공업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북한은 1960년대 말 정무원에 군수공업을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부를 따로 신설하였고, 노동당 비서국에 군수공업 담당 비서를 두어 군수산업전반을 총괄토록 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에는 제2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수생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제2경제위원회는 제2정무원’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정무원과는 별도의 기관으로 일반 경제에 우선하여 계획·생산·공급·재정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에 생산기구 뿐만 아니라 정무원의 생산기관에 까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등의 명칭하에 군수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군수생산을 확대해 나갔다. 제2경제위원회는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신설된 뒤, 1993년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⁹⁾

나. 제2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군수산업 현황

제2경제위원회는 하부에 130여개의 군수공장·기업소와 60여개의 병기수리창 및 부속품제조창을 두고 있으며, 이들 공장들은 일련번호나 위장명칭을 사용하여 생산무기의 성격과 유형을 은폐하고 있다. 이 밖에 유사시 군수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민수품 공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중·대형 공장들은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9) 정유진, 앞의 글, pp. 88~91.

(1) 제2경제위원회의 주요 부서별 관장 업무

(가) 종합계획국

종합계획국에서는 군수품 생산수요와 생산계획, 자재조달, 예산편성 및 판매 등 군수물자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나 군사장비의 수요를 제출하면, 종합계획국은 그것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수요처와 협의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기초로 필요한 자재계획과 예산편성을 한다.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종합계획국은 이를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에 제출한다. 계획이 제출되면 군수계획국은 생산에 필요한 제반조건들이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하부기관들에 하달된다.

(나) 제1총국(제1기계공업국): 소형무기 및 탄약생산

제1총국은 소총과 탄약, 기관총 등 개인화기와 이에 관련된 기타 군사장비 및 60mm박격포, 70mm발사관, 수류탄, 지뢰 등 경량무기의 생산을 관리한다. 제2경제위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제1총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무기를 생산해 오고 있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82mm 이하의 소형무기 및 탄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의 수요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제1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2·8기계공장 (옛 65호 공장)	자강도 전천군	12,000	5.45mm 자동소총, 백두산권총, 투척기 자동보총, 7.62mm RPD경기관총, 7.62mm RP-46경기관총, KPV중기관총, SGM중기관총, 82mm 박격포
제42호공장	자강도 장강	1,200	소구경 탄약, 수류탄, 지뢰
제61호공장	자강도 강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제93호공장	자강도 강계		각종 소화기에 소요되는 목재가공품, 총 개머리판
제81호공장	자강도 전천	2,500	82mm 박격포, 60mm 박격포, 무반동포
제67호공장	평양시 강동군	7,500	14.5mm 2신, 4신 고사기관총, KPV중기관총(12.43mm), SGM중기관총
제101호공장	평양시 강동군	3,000	각종 개인화기 탄약, 수류탄, 대인지뢰
제17호공장	함남도 함흥	3,000	다이아마이트, 각종도화선, 화약, 고성능 화약
제62호공장	함북도 종성	3,500	수류탄, 대전차 수류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이외에도 제1총국 산하에는 강계 탄약공장 등 많은 군수공장들이 소속되어 있다.

(다) 제2총국(제2기계공업국): 전차·장갑차 생산

각종 탱크, 장갑차, 수륙양용차와 같은 기계화된 무기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북한은 각종 전차 및 장갑차의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T-62 개량형 전차, T-63 수륙양용 전차, PT-85 수륙경형전차, BMP-1 보병장갑전투차를 생산하고 있다.

<표 3> 제2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구성탱크공장	평북도 구성시	8,000	각종 전차, T-62형 전차
제915호공장	평남도 순천	2,000	각종 전차엔진 및 엔진 부속품

(라) 제3총국(제3기계공업국): 대포·고사포·자주로켓포·다연장로켓포 생산

각종 포무기의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국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며 민수공장과의 협동생산량도 많다. 특히 대구경 자주포와 방사포는 여러 공장들의 협동생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방사포의 포신 및 기계장치는 대안중기계공장 등에서 협동생산한다. 주행장치의 경우에는 금성트랙터공장, 승리자동차공장, 316공장 등 인민무력부 소속 공장과 내각 산하 공장들에서 협동생산한다.

북한은 82mm 이상의 대포 및 곡사포, 다연장로켓포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mm 및 37mm 자주고사포(M-1992식)와 120mm 자주조합포(M-1992식)를 생산하는 것 외에, 22mm(M-1981

식)와 130mm(M-1992식), 170mm(M-1978식과 M-1989식) 자주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122mm(M-1997식, M-1991식, M-1985식, MB-11식) 및 240mm(MB-11식과 M-1991식) 자주다연장로켓포를 생산하고 있다.

<표 4> 제3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강계트랙터공장 (위장명칭)	자강도 강계	12,000	박격포탄, 방사포탄, 대전차포탄
제32호공장	자강도 강계	1,000	각종 야포탄, 자주포탄
삭주병기공장	평북도 삭주	5,000	122mm 곡사포, 155mm 곡사포
곽산포수리공장	평북도 곽산		각종 야포 수리
용성기계공장	함남도 함흥시	15,000	각종 포신 가공, 야포·자주포의 기계장치
만경대보석가공공장	평양시 만경대	2,000	각종 조준경, 유도장치, 레이저 탐지기

북한은 각종 로켓포를 생산하여 자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중동국가 등에 수출함으로써 외화벌이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제4총국(제4기계공업국): 각종 미사일 생산

각종 미사일 생산을 관리·지휘하는 총국으로 구 소련제 지대지 미사일 SCUD-B를 모방하여 1987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비롯하여 1991년에는 이를 개량한 SCUD-C를 생산하였으며,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약 1,300km인 ‘노동1호’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1995년부터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8월에는 사정거리가 1,500km 이상인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¹³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사정거리가 4,000km 이상인 ‘대포동2호’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SAM계통의 지대공 사일과 ‘실크웜’계통의 지대함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표 5> 제4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공장명	소재지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제26호공장	자강도 강계	10,000	대전차 유도탄, SAM-7 지대공미사일, 대구경 방사포탄
만경대 약전기계공장	평양시 용성구역	6,000	지대지미사일(노동1호, 대포동1호), 실크웜 대함미사일
평양 돼지공장 (제125호공장)	평양시 용성구역	5,000	지대공미사일, 실크웜 대함미사일
동해약전공장	함북도 청진시	4,000	SAM-7 지대공미사일, 대전차 유도탄
제301호공장	평북도 대관		지대공미사일

130) 북한은 이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제5총국(제5기제공업국):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생산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생산을 담당하는 총국으로, 영변핵단지내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무기의 개발 및 생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중간재와 원자재의 생산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무기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 함흥 분원과 신의주, 강계 등 4개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7~8개소의 화학공장에서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중간재·원자재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화학작용제로는 신경마비성인 자린, 조만, 따분, V가스 등이 있으며, 피부미란성으로는 이쁘리트, 루이지트 등과 혈액작용제인 청산, 염화시안, 호스겐 등이 있다.

북한은 현재 부분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작용제, 최루작용제, 수포화학작용제, 이페리트와 같은 화학작용제의 경우 연간 생산 능력은 수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콜레라균, 발진티프스균, 탄저균 등 13종의 세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연간 보존량은 약 1톤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6> 제5총국 산하 주요 공장

공장명	소재지	주요 생산품
강계화학공장	자강도 강계	신경계, 피부계 화학무기
삭주화학공장	평북도 삭주	벤졸, 페놀 등 화학무기 중간재
제279호공장	평남도 평원	해독제, 방독면, 방독복
2·8비달론공장 일용분공장	함북도 함흥	화학무기 제조용 원자재
순천비달론공장 일용분공장	평북도 순천	화학무기 제조용 원자재

(사) 제6총국(제6기계공업국): 함정 및 잠수정 생산

각종 전투함정과 잠수함 등 해군장비의 생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최근 북한은 어뢰정, 방사포정, 공기부양정 이외에 소형 전투함정 및 소형 잠수함 건조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각종 전투함과 잠수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성’급 순찰어뢰정, ‘공풍’ 공기부양상륙정, ‘서영’급 유도탄쾌속정, ‘남포’급 상륙쾌속정, ‘한태’급 상륙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며, ‘서해’급 및 ‘나진’급 상륙함과 R급, 유고급, 상어급 잠수정 등을 생산하고 있다.

<표 7> 제6총국 산하 주요 공장

공장명	소재지	주요 생산품
봉대보일러공장	함남도 신포	잠수함
나진조선소	함북도 나진	방사포정, 어뢰정, 잠수함
남포조선소 일용분공장	평남도 남포	공기부양정
청진조선소 일용분공장	함북도 청진	어뢰정
원산조선소 일용분공장	강원도 원산	어뢰정
1월9일공장	평양시	잠수함 및 소형함정 부품

(아) 제7총국(제7기계공업국): 통신설비 및 비행기 생산

통신장비와 항공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7총국은 야전용 진화

기, 모르스 전신기, 단파 무전기 및 각종 지휘관용 무전기, 전기·전자 부품 및 건전지 등 통신기자재의 생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레이더 및 미그 29기의 조립생산을 비롯하여 소형 헬기제작과 비행기의 수리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연습기, 작전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의 조립 및 개조·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야크-18연습기와 AN-2 개량형 수송기 및 미-2 개량형 헬리콥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IL-18 폭격기와 AN-24 수송기를 개조해 내고 있다고 한다.

<표 8> 제7총국 산하 주요 공장

공장명	소재지	주요 생산품
남포통신기계공장	평남도 남포	무전기, 기타 통신장비
제69호공장	평남도 성천군	전자집적회로
제24호공장	평남도 성천군	배터리 건전지
의주건전지공장	평북도 의주군	건전지
청천강전기공장	평남도 안주	지휘용 무전기
방현항공기공장	평북도 구성	항공기

(자) 대외경제총국: 대외무역담당

제2경제위원회의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며, 자체로 외화를 벌기위해 일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산하에 ‘용악산무역총회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당의 승인하에 무기판매에도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¹⁾ 또한 산하에 조선금강은행이라는 별도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독자적인 외화자금 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무기류를 비롯하여 비철금속과 보석류 등이 있는데 이들 주요자원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 제2자연과학원

제2자연과학원(구 국방과학원)은 대포동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북한군의 모든 무장장비를 개량·개발하는 기관이다. 제2경제위원회에서 생산하는 무기와 군사장비는 물론 일반기업의 협동생산품까지 연구·개발하며 규격 제정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2자연과학원은 산하에 유도무기,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화학소재, 기술경제 등 40여 개에 달하는 부문별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무기 및 무기소재 등의 연구개발과 함께 군수공장들에 대한 지도를 수행해 오고 있다.

직할 연구부문의 경우 화생방, 유도, 전자, 항공, 포, 함정 등 각종 무기의 개발과 함께 외국무기를 도입한 후 북한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된다. 동 과학원은 지방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각 분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함흥분원은 화학, 서해분원은 세균, 박천은 핵, 강계는 전자 및 유도분야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각 분원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²⁾

131) 원래 무기판매는 인민무력부 15국이 독점하였다. 정유진, 위의 글, p. 95.

132)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통일경제』, 1995년 8월호, p. 97.

(2) 제2경제위원회의 민수품 생산

북한의 민수경제부문에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데 반해 군수부문에서 민수품을 생산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수부문에서 일반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문제와 관련한 생산체계나 규모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일성저작집』에서 몇가지 관련된 발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강도에 있는 제1국산하 기계공장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 제1국산하 기계공장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군수품 생산과제를 앞당겨수행하고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 ... 26호공장에서는 지난날 1년동안에 생산하던 군수품을 반년동안에 생산하고 나머지 반년동안에는 다른 기계설비들을 생산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공장에서는 적어도 견직기 500대, 면직기 1,000대, 조방기 30대, 보이라 500대 그리고 방열기 같은것을 더 생산하여야 합니다.¹³³⁾

군수공업부문에서 수산부문에 보장하여주게 되어있는 설비, 자재도 빨리 대주어야 합니다.수산부문에 줄 의장품과 설비,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에 기계공업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제1경제사업부담당 비서가 직접 나가 조직사업을 하여 배수리에 필요한 의장품과 부속품, 설비, 자재를 무조건 8월까지 다 대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¹³⁴⁾

133) 김일성, “자강도 당단체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1958.8.5),”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76~78.

134) 김일성, “겨울철물고기잡이준비를 다그치며 양어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하여 (1981.5.18),” 『김일성저작집』 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 100.

이는 국방력 증대를 위한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북한이 전후복구기간 중 군수부문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계제작 관련 공장에게 민수용 기계설비 생산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군수부문의 우선적인 발전 정책으로 군수산업부문이 생산능력이나 제품 질의 측면에서 일반경제부문보다 앞서 나가게 되자 점차 군수부문의 생산능력을 동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민수부문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에 대한 지원 및 ‘방조’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제2경제부문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에 들어 제2경제위원회가 생필품 생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 제2경제위원회의 생필품 생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¹³⁵⁾

북한은 내각 산하의 민수공장들에 ‘일용’이라는 명칭의 군수품 전문 생산공정이 설치한 것처럼, 군수부문의 공장과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생필)’이라는 명칭을 가진 일반소비품 생산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⁶⁾

1980년대 초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이 같은 생산체계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정일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수부문의 경공업공장들의 기술이 낮고 생산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좋고 기술수준이 뛰어

135) 원희, “북한군수경제의 구조적 특징,” 『민족통일』, 2000년 8월호

136) 특급이나 일급공장들에는 ‘인민생활필수품 생산직장’을 설치하였으며, 작은 규모의 군수공장에는 ‘생필품작업반’을 두고 일반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난 제2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¹³⁷⁾ 이에 따라 제2경제위원회에 ‘생필생산지도소조’를 설치하여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지도·감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조직은 ‘생필생산지도총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군수공장들의 생필품 생산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자재를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제2경제위원회는 김정일의 지시를 관철한다는 측면에서 ‘인민소비품 견본전시회’를 개최하여 김정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김정일은 군수부문에 일반 소비품 생산공정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특히 생산한 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하여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군수경제를 자립시키도록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군수공장들에서는 생필품 생산공정을 설치하고 수출용 생필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¹³⁸⁾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군수품생산계획을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생필품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관리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여 별다른 수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하자 채고만 쌓이게 된 것이다. 생필품 수출에서 손해를 보게된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137)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금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고급 생활 필수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대단히 높다. 그런데 경공업공장들이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선 이 부문 일군들에게 당성, 인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경공업부문의 기술기능수준과 생산설비가 낙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이 과업을 장비가 좋고 기술기능도 높은 제2경제위원회에 맡기려고 한다. 군수공업부문에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남은 유희자재로 고급생활 필수품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외화도 벌어들이고 인민들에게도 공급하여야 한다.”

138) 이때 주로 생산되었던 품목으로는 밥통, 전기밥솥, 전기후라이팬, 식칼류, 소형녹음기 등이다.

위하여 ‘울동완구’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만 것으로 평가된다.¹³⁹⁾ 제2경제위원회의 생필품 생산사업은 199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할당된 ‘생필계획’이 거의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수부문에 집중되어 온 북한경제의 특징과 누적되어온 경제난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가 직면한 난관이 쉽사리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139) 장난감 자동차, 탱크, 자동총, 비행기, 북치는 곱, 춤추는 인형 등이 이 시기에 생산된 주요 ‘울동완구’였다.

V. 군수산업 우선 정책의 북한경제 파급 효과

1. 군수산업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북한의 군비지출 추계와 한계

(1) 북한의 군비 지출 추계

북한의 『경제사전』(1985)에 따르면 국방비는 “사회주의국가가 자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사회주의 국가예산지출항목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의 목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¹⁴⁰⁾ 우리의 경우 국방비는 “국방을 위해 쓰여지는 정부 예산 및 국가 재원”으로 외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을 의미한다.¹⁴¹⁾ 이렇게 체제와 주어진 상황의 차이에 따라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한간에 국방비 지출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권수호와 자국의 이익 보호가 바로

140)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25. 『경제사전』 1970년판에서는 국방비를 “사회주의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어 1970년대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자위국방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1) 국방부,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1999. p. 6.

그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군사비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군사비 지출 규모 및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추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¹⁴²⁾ 국방비는 일반적으로 병력, 장비, 시설유지 등 현존 군사력 유지에 사용되는 운영유지비와 무기 및 장비 구입, 연구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전력발전 투자비로 구분되는데, 북한은 국방건설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체 국방비의 평균 48% 정도를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⁴³⁾

국방비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서방측의 추계는 미시적 추계방식과 거시적 추계방식이 있다. 미시적 추계방식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운영유지비의 경우에는 인건비(병력수×급여 및 체수당), 급식비(병력수×1인당 식비), 피복비(병력수×1인당 피복비) 등을 더한 병력 유지비와 부대 유지비(급별 부대수×기준단가) 및 장비 유지비(장비별 보유수×기준유지비) 등을 합하여 직접적으로 추계하게 된다. 거시적 추계방식은 각종 정부통계,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중앙정부(CIA)와 영국의 국방성은 미시적인 추계방법을, 미국의 국방정보본부(DIA)와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거시적인 추계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⁴⁾

북한의 국방비에 대한 추계는 그 동안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추계를 통하여 발표해오고 있는데, 국내기관으로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142)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pp. 205~26 참조.

14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p. 864.

144) 박춘삼, “북한 군사비규모 판단,” 국방정책연구원, 『국방논집』, 제15호, 1991, p. 89.

통일부 및 국방연구원 등이 있으며, 외국기관으로는 영국의 국제전략 문제연구소(IISS)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미국의 군축국(ACDA)과 랜드연구소(RAND) 등이 있다.

<표 9> 북한의 군사비에 대한 추계 비교

년도	IISS	SIPRI	ACDA	RAND	통일부	국방부	북한발표치
단위	백만달러	북한원 (백만)	백만달러	백만달러	북한원 (백만)	북한원 (백만)	북한원 (백만)
1968			587	1,398	2,089	1,559	1,559.4
1969			617	1,366	2,131	1,565	1,569.0
1970			576	1,655	2,539	1,765	1,878.5
1971			757	1,952	2,660	1,960	1,959.8
1972			1,030	2,266	2,791	2,282	1,256.1
1973			1,080	1,980	2,851	2,569	1,280.3
1974		1,557	1,370	2,341	3,460	2,989	1,557.2
1975	878(78-79)	1,864	2,000	2,079	4,510	3,511	1,864.3
1976		2,058	2,200	2,236	4,590	3,808	2,065.4
1977	1,000(79-80)	2,096	2,500	2,489	4,659	4,125	2,095.8
1978	1,200(79-80)	2,344	2,800	2,521	4,631	4,555	2,344.2
1979	1,231(79-80)	2,563	3,200	2,405	5,490	5,244	2,562.9
1980	1,341(82-83)	2,750	3,500	2,665	6,068	5,820	2,750.2
1981	1,681(82-83)	3,009	4,200	2,676	6,286	6,287	3,009.3
1982	1,916(83-84)	3,242	4,600	2,523	6,869	6,860	3,241.7
1983	3,832(86-87)	3,530	4,900	2,598	7,412	7,421	3,529.7
1984	4,086(86-87)	3,819	5,060		8,071	8,083	3,819.1
1985	4,125	3,935	5,260		8,505	8,469	3,935.4

90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년도	IISS	SIPRI	ACDA	RAND	통일부	국방부	북한발표치
단위	백만달러	북한원 (백만)	백만달러	백만달러	북한원 (백만)	북한원 (백만)	북한원 (백만)
1986	3,872(88-89)	3,976	5,440		8,882	8,764	3,918.9
1987	4,223(88-89)	3,971	5,640		9,031	9,373	3,971.2
1988	4,625	3,863	5,840		9,503	9,857	3,862.6
1989	4,154	4,060	6,000		10,013	11,774	4,005.9
1990		4,314	5,940		10,614	12,131	4,261.6
1991	12,000(92-3)	4,466	4,660		11,954		4,466.0
1992	11,800(94-5)	4,582	5,500				4,480.6
1993	11,300(94-5)	4,692	5,300			12,083	4,627.9
1994	11,900(95-6)	4,817	5,500			12,442	4,724.4
1995	11,500(96-7)	-	6,000			12,915	-
1996		-				12,369	-
1997	5,060(99-00)	-				10,325	-
1998	4,400(99-00)	-				10,516	2,922.2
1999		-				10,373	2,955.4

출처: 박춘삼, “북한 군사비 규모 판단,” 『국방논집』 제15호, 한국국방연구원, 1991, p. 90; 통일부, 『북한경제통계집』, 1996, pp. 141-42;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195; SIPRI, *SIPRI Yearbook 1996*, p. 362; <http://dosfan.lib.uic.edu/acda/wme-at95/tablec21.htm>.

참고: IISS 추계치의 괄호안의 수치는 추계년도이다.

<표 9>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내외 기관들이 추계한 북한의 군사비는 각기 다르다. 추계기관에 따라서 그 수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추계방식의 차이와 함께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⁴⁵⁾ 또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군사비에서 1972년의 군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현상을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측이 운영유지비만 군사비로 발표하고 투자비는 ‘인민경제비’ 등 다른 항목에 분산 은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함택영(1998)은 앞의 표에 나타난 국내외 기관들의 북한 군사비 추정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¹⁴⁶⁾ 첫째, 북한의 총예산지출의 증가비율이 국민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방비/예산지출의 비율을 일정비율(예 30.9%)로 고정시켜 놓을 경우 북한의 ‘방위부담’(국민소득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은 점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의 높은 군비부담비율은 북한의 공격적 성향, 또는 적어도 높은 수준의 군사화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1972년의 공식 국방비지출인 예산지출의 17%도 국민소득과의 비율(10.2%)을 고려할 때, 1961~66년간 예산지출의 19.8%(국민소득과의 비율 9.9~10.9%)보다 결코 작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방비지출에 대한 남한측 추정치는 그 구성부문을 살펴볼 때 역시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74~90년의 기간 중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28.8억 달러에서 49.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전력증강투자에 국방비의 48%를 지출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같은 기간 동안에 46.7만~56.2만 명에서 99만~120만 명으로 병력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군병력이나 전

145) 기관별 추계치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춘삼, 위의 글, pp. 91~92,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174~88, 함택영, 앞의 책, pp. 80~85 참조.

146) 함택영, 앞의 책, pp. 210~19.

투장비를 증강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대 및 장비 운영유지비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다시 방위부담의 증가를 야기한다. 특히 북한의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국방비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인민군 병력을 배가시키면서 동시에 국방비의 48%를 투자비로 지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측의 평가는 전력의 단순개수비교라는 관점에서도 북한의 군비증강 추이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기 5년 동안 북한은 소련의 원조로 미그기와 대공미사일, 방공레이더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군력과 방공능력 개선사업에 20~30억불을 지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남한의 '자본집약적' 군비증강에 직면해서 경제적 제약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군비증강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넷째, 1972년에 국방예산을 감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71~72년 기간 동안 국방에 대한 지출을 감축시킬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미국측 인사들에게 밝힌바 있고, 197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부터의 (무상의) 군사원조가 재개된 반면, 소련으로부터의 (유상의) 주요무기 이전은 대폭 감소된 상황이었다. 또한 북한의 산업생산 증가는 물론 주택 및 공공기념물 등 비생산적 건설계획이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이 부족한 북한으로서 생산적 및 비생산적 경제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가했던 방위부담 (GNP의 15~20%)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원의 환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 국방비 지출을 같은 단위, 예컨대 달러화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택영(1998)은 두 가지 가정과 북한 국민소득의 구매력평가지수(PPP)에 근거하여 북한의 군사비를 추계하고 있다. 두 가지 가정이란, ‘군사재화의 가격우월성’과 ‘공식국방예산에서 군사원조 제외’를 말한다. ‘군사재화의 가격우월성’ 가정은 “북한의 군사적 재화에 대한 북한원화의 구매력은 (아마도) 1971~72년의 도매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라 민간재화의 구매력보다 높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이며, ‘공식국방예산에서 군사원조 제외’ 가정은 “중국의 공여나 소련의 차관 등 해외군사원조가 적어도 1972년경부터는 북한의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¹⁴⁷⁾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함택영은 북한의 국방비 추계액으로 ① 공식국방예산에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무기도입액을 더하거나, ② 북한의 공식적인 국방예산을 1.5배¹⁴⁸⁾ 곱한 것, 또는 이들 양자를 합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는 다음의 <표10>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은닉된 군사비’ 부문은 1960년대의 경우 북한이 나중에 인정한 금액으로, 1972년부터 1990년의 기간은 공식 국방비의 50%로, 1991년 이후는 국가예산의 8.5%(상한선) 또는 공식 국방비의 50%(하한선)로 추정하였다. 군사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는 1972년 이후 1990년까지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공식국방비를 하한선으로 공식 국방비의 1.5배를 상한선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적용된 환율은 도매물가와 임금 및 농산물 수매가 인상분과 각 계획 기간별 추정 인플레이션을 및 달러화

147) 함택영, 앞의 책, p. 216.

148) 1.5배라는 수치는 1972년 북한의 실제 국방비지출/예산지출의 비율이 1967~71년간의 30.9%라는 최고치보다는 1961~70년에 평균치인 25.4%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함택영, 위의 책, p. 217.

인플레이션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도별 구매력평가환율(PPP)이다.¹⁴⁹⁾ 군사원조액은 주로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무기 및 군사장비 제공에 대한 미국 기관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비 총계에서 제시된 1992년 이후 3년 동안의 최대치는 구매력평가환율(PPP)을 1991년의 추정환율(1달러 = 2.15북한원)이 계속 유효하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금액이다.

한편 이달희(1990)는 북한예산의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시책비를 북한의 문헌을 기초로 재추정한 뒤, 이를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1971~89년 기간 동안의 국방비를 추계하였는데 1971년 세출예산의 31%를 시작으로 1989년에는 26.8~28.7%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⁰⁾ 이러한 추정치를 무역환율로 환산하면, 1971년의 경우 763백만달러에서 1975년 1,662백만달러, 1980년 3,087백만달러, 1985년 3,240백만달러, 1989년 4,189백만달러로 추정되어 1975년 이후 함택영(1998)의 최대 추정치를 약간 상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북한의 군사비 추정

년도	군사비/예산(%)			추정국방비		군사원조	총계
	발표치	은닉부분	합계	북한 (백만)원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1960	3.1	15.9	19.0	374	166		166
1961	2.5	13.5	16.0	374	162	(30)	162
1962	2.2	(13.3)	15.5	422	181	(30)	181
1963	2.1	(13.3)	15.4	467	200	(30)	200
1964	(7.5)	(13.3)	20.8	712	304	(30)	304
1965	(9.8)	(13.3)	23.1	804	343	(43)	343

149) 함영택, 앞의 책, pp. 270~79 참조.

150)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07~12.

년도	군사비/예산(%)			추정국방비		군사원조	총계
	발표치	은닉 부분	합 계	북한 (백만)원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1966	(11.8)	(13.3)	25.1	897	387	(70)	387
1967	30.4	-	30.4	1,200	513	(81)	513
1968	32.4	-	32.4	1,599	672	(70)	672
1969	31.0	-	31.0	1,565	681	(10)	681
1970	29.2	-	29.2	1,484	742	(60)	742
1971	31.1	-	31.1	1,960	975	(170)	975
1972	17.0	(8.5)	17.0-25.5	1,256-1,884	616-924	170	786-1,094
1973	15.4	(7.7)	15.4-23.1	1,280-1,921	631-946	210	841-1,156
1974	16.1	(8.1)	16.1-24.2	1,557-2,336	787-1,180	130	917-1,310
1975	16.4	(8.2)	16.4-24.6	1,864-2,797	956-1,434	140	1,096-1,574
1976	16.7	(8.4)	16.7-25.1	2,058-3,088	1,067-1,600	80	1,147-1,680
1977	15.7	(7.9)	15.7-23.6	2,096-3,144	1,103-1,654	140	1,243-1,795
1978	15.9	(8.0)	15.9-23.9	2,344-3,516	1,260-1,891	80	1,340-1,971
1979	15.1	(7.6)	15.1-22.7	2,563-3,844	1,385-2,078	210	1,595-2,288
1980	14.6	(7.3)	14.6-21.9	2,750-4,125	1,495-2,242	90	1,585-2,332
1981	14.8	(7.4)	14.8-22.2	3,009-4,514	1,618-2,427	210	1,828-2,637
1982	14.6	(7.3)	14.6-21.9	3,242-4,863	1,706-2,559	340	2,046-2,899
1983	14.7	(7.4)	14.7-22.1	3,531-5,296	1,829-2,744	190	2,019-2,934
1984	14.6	(7.3)	14.6-21.9	3,819-5,729	1,949-2,923	120	2,069-3,043
1985	14.4	(7.2)	14.4-21.6	3,935-5,903	1,968-2,952	380	2,348-3,332
1986	14.0	(7.0)	14.0-21.0	4,045-6,068	2,043-3,065	420	2,463-3,485
1987	13.2	(6.6)	13.2-19.8	3,971-5,957	2,037-3,055	420	2,457-3,475
1988	12.2	(6.1)	12.2-18.3	3,863-5,794	1,961-2,941	1,000	2,961-3,941
1989	12.0	(6.0)	12.0-18.0	4,006-6,009	2,003-3,005	600	2,603-3,605
1990	12.0	(6.0)	12.0-18.0	4,262-6,393	2,079-3,118	200	2,279-3,318
1991	12.1	6.1-8.5	18.2-20.6	6,700-7,603	3,116-3,536	(90)	3,116-3,536
1992	11.4	5.7-8.5	17.1-19.9	6,721-7,821	2,842-3,307	(10)	2,842-3,307-3,638
1993	11.5	5.8-8.5	17.3-20.0	6,942-8,049	2,595-3,009	(5)	2,595-3,009-3,744
1994	11.4	5.5-8.5	17.1-19.9	7,087-8,247	2,320-2,700	(50)	2,320-2,700-3,836

출처: 함택영, 앞의 책, pp. 220~21.

(2) 북한의 군비 지출 추계의 한계

이러한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북한의 군사비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실체에 접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언급된 문제 이외에도 ‘일용분공장’이나 ‘일용직장’의 생산실태에 대한 분석과 이를 위해 투입된 자원규모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군수부문에서의 생필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추정치는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군수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어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일반경제부문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군수산업부문에까지 파급되면서 최근 북한에서 부분적이나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대부분 군수산업관련 공장들뿐이라는 주장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2경제위원회의 군수계획은 일반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다는 증언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¹⁵¹⁾ 이에 따르면, 북한이 1972년경부터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략 12~14% 내외로 축소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군사비의 과다지출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비난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70년대 초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무원(현 내각)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군수부문의 생산활동을 일반 인민경제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151) 정유진, “베일에 가린 북한의 국방예산,” 『한국발전리뷰』 제85회 내용 참조. <http://www.hanbal.com/review/review85/review5.html>

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북한의 국방비 예산은 국가계획위원회 안에 있는 군수계획국¹⁵²⁾에서 각 무력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군수계획국에서 종합된 수요는 국가계획위원회 1국의 조정을 거쳐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군수품 생산을 주관하는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계획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위원회 1국의 계획에 포함되게 된다. 그 결과 제2경제위원회의 방대한 군수생산 관련 계획은 일반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내각 산하의 생산공장들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들의 계획도 제2경제위원회의 군수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어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장에서 살펴본 군사부문에 투입된 예산의 비중은 은닉된 부문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난이 누적되어온 1990년대에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군사비의 비중을 추계하기에는 자료와 정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을 구별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북한의 군인력 추계와 일반경제에서의 역할

(1) 북한군의 일반경제에서의 역할

북한 군병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152) 군수계획국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모두 현역 군인들로서 인민군 소장을 책임자로 인민무력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추정치 역시 추계 기관 및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군인력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북한은 군대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일반경제부문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일성도 생전에 전쟁의 외중에서 많은 인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국방부문에 많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스스로 군대에 투입된 인적 자원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중함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적지 않은 수의 로력자를 잃었을뿐 아니라 현재 정전일따름이고 ... 계속 필요한 수의 청장년들을 국방에 돌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건설하려니가 자연히 로력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¹⁵³⁾

인구의 비례로 보아 우리는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서도 군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면서 동시에 국방건설에 막대한 자재와 력량을 돌리고 있습니다.¹⁵⁴⁾

이와 함께 상당수의 건설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군인력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⁵⁾ 북한군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투입은 처음에는

153)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1.30),” 『김일성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4~5.

154)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 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1963.2.8),”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28.

155) 일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군 인력의 숫자나 평균 복무기간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를 비군사적 활동에 투입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in the DPRK*, Washington, D.C.: Asia Watch, 1988, 함택영, 앞의 책, p. 324에서 재인용.

대규모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범주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선군정치(先軍政治)’와 ‘군·민일치운동(軍·民一致運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더욱 악화된 식량난 등 경제위기가 악화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성심이 높은 군부세력을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김정일의 통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악화되는 경제난과 이에 따른 사회기강 해이 현상이 확산된 1996년 이후 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당의 지도를 받는 ‘당의 물리력’ 수준을 넘어서 건설 및 농업분야의 핵심적 노동력으로서 위기의 당과 국가를 이끄는 견인차로 부각된 것이다. 이처럼 군의 역할이 강조되는 선군정치론이 ‘군·민일치운동’과 결합하면서 군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참여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1995년 북한의 방송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이 ‘군·민일치’에 모범을 보인 여러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를 보냈으며 ‘군·민일치운동’의 확산을 독려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서 ‘군·민일치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정 간부 및 주민들의 군 부대에 대한 원호물자 지원, 군병력이 투입된 건설현장의 주민 노력 지원 및 경제선동, 군부대에서의 농촌 및 탄광 등 지원, 위기상황에서의 구출 등이 그것이다.¹⁵⁶⁾ 북한은 이 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체제 고수와 경제적 생산증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군은 경제난의 와중에서 거의 마비상태에 빠진 일반 경제부문을 위탁 경영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초반부터

156) 『연합통신』 (1995. 1. 9)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91995010900500>

협동농장, 철도, 각 공장·기업소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이다. 인근지역의 중대 이상 규모의 부대가 공장·기업소를 1개씩 맡아 운영하며, 협동농장에는 파종기부터 추수기까지 군인들이 상주하였다는 것이다. 중좌나 상좌급 군관들은 농장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농장관리에 관여하는데, 각 작업반에는 대위급 군관 1명이 배속되어 농장원 개개인의 출퇴근 확인, 파종·김매기, 퇴비 등 농장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간섭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 운영의 경우, 각 역마다 소좌나 중좌급 군관 1~2명을 책임자로 5~1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 질서, 화물적재 등 철도업무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역장의 권한은 철저하게 무시된다고 한다.¹⁵⁷⁾

동시에 북한군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지원활동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한방송을 종합한 『연합뉴스』 보도자료(2000.10.28)에 따르면, 북한군은 2000년 10월 한달 동안에만 주둔지역의 문화회관·식당·목욕탕·이발소 건설, 주택 보수공사, 주민생계 지원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군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지원활동 중 특징적인 점은 민간부문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메기공장, 닭·돼지 축사, 중소형 발전소 등을 전담해 건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⁸⁾ 구체적인 사례로 ‘닭공장’ 건설(조선중앙방송, 2000. 11. 2), 최신식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가금목장’ 완공(조선중앙방송, 2000. 10. 25), ‘메기공장’ 건설(조선중앙방송, 2000. 10. 19), 국영농장인 양강도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건설 중(평양방송, 2000. 6. 28)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완공된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 고속도로)와 안변청

157)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3~34.

158) 『연합뉴스』 (2000. 10. 28),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0102800400>

년발전소(강원도 안변군), 태천발전소(평북 태천) 등 대규모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평남 북창) 등 발전부문의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에서 직접 채탄작업에까지 북한군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군의 경제부문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은 방송매체를 통하여 이를 '군민(軍民)일치'의 모범 사례로 크게 선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은 부대별로 식량과 육류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300평에서 1천7백여평에 달하는 부업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 부대별로 부업지를 개간, 옥수수, 콩, 남새(채소) 등을 자체 해결하라”고 지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각 부대는 대위를 조장으로 사병 20명으로 대대 단위의 부업조를 편성하고 옥수수 500평, 콩 700평, 채소 500평 등 평균 1천7백여평 규모의 부업지를 경작하고, 가축으로 돼지 50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998년 5월부터는 양어장을 조성, 잉어, 붕어 등의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⁹⁾

이러한 현상은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북한군의 일반경제에 대한 기여(참여)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병력에 대한 지출이 어느 정도는 일반경제부문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 군사비 지출이 일방적으로 경제발전의 장애요소로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군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일반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말해 군사부문이 인적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민수산업 부문과 상충관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규

159) 『연합뉴스』 (2000. 4. 29),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0042900900>

모 및 구성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반경제부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와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에서의 역할은 다를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기적인 구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의 군인력 추계와 한계

그러나 연구·분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북한군의 건설부문에 대한 참여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물론이고,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이나 군병력의 추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11>를 통해 시도한 북한군병력이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하는 작업도 과도한 추정과 단순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년에야 비로소 유엔인구기금(UNPF)에 1946~87년 기간의 각종 인구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1987년 현재 북한 인구(인민군 제외)는 총 1,934만 6천 명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측 정부기관이 추계한 1994년 말의 북한인구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인민군을 포함하여 총 2,295만 3천명으로 추정된다.¹⁶⁰⁾ 그러나 북한이 「'93년 인구센서스」를 발표한 이후 정부의 관련기관들은 「'93년 인구센서스」자료를 기초로, 북한 당국의 국제기구 보고자료, 국제회의 발표자료, 귀순자 면접조사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인구를 새롭게 추계하였

160) <http://www3.joins.co.kr/nk/general/govern/a006.htm>

는데, 그 결과는 기존의 추계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추계치에서는 1990년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발생과 출산 기피현상 등 인구변화요인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추계방식에 따르면, 1994년 북한의 인구는 총 2,135만 3천명으로 기존의 추정치보다 낮게 추계되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추계에서부터 참고자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더 큰 어려움은 새로운 추계방식에 따른 추계치가 최근 년도에만 국한되어 있어 분석에 필요한 장기적인 시계열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추계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¹⁶¹⁾

이외에도 북한의 군수공장이나 내각 산하의 일용분공장(일용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력과,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북한군병력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의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더욱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북한의 군부에서 활용되는 인력의 크기와 이것이 일반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며, 동시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61) 북한의 인구 및 군병력 추계에 대한 연구작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오길남, 「북한의 노동력 구조」, 한국노동연구원, 1996;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1990, 한국개발연구원 (역),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1991 등이 있다.

<표 11> 북한군의 비중 추계

(단위 : 천명, %)

	총인구(A)	경제활동가능인구		군병력		
		15~64세(B)	비율	군병력(C)	C/A	C/B
1960	10,789	6,366	59.0	397.9	3.7	6.6
1961	11,173	6,592	59.0	397.9	3.6	6.0
1962	11,564	6,823	59.0	389.3	3.4	5.7
1963	11,962	7,058	59.0	375.1	3.1	5.3
1964	12,366	7,296	59.0	411.3	3.3	5.6
1965	12,774	7,537	59.0	411.3	3.2	5.5
1966	13,181	7,777	59.0	411.3	3.1	5.3
1967	13,584	8,015	59.0	412.5	3.0	5.2
1968	13,983	8,250	59.0	433.5	3.1	5.3
1969	14,378	8,483	59.0	466.1	3.2	5.5
1970	14,905	8,782	58.9	467.3	3.1	5.3
1971	15,293	9,007	59.0	466.7	3.1	5.2
1972	15,660	9,224	59.0	468.2	3.0	5.1
1973	16,020	9,436	59.0	504.7	3.2	5.4
1974	16,388	9,653	59.0	561.8	3.4	5.8
1975	16,646	9,839	59.1	567.0	3.4	5.8
1976	16,854	9,961	59.1	567.0	3.4	5.7
1977	17,056	10,080	59.1	570.0	3.3	5.7
1978	17,252	10,196	59.1	612.0	3.6	6.0
1979	17,442	10,308	59.1	692.0	4.0	6.7
1980	17,622	10,926	62.0	700.0	4.0	6.4
1981	17,916	11,108	62.0	768.0	4.3	6.9
1982	18,215	11,294	62.0	782.0	4.3	6.9
1983	18,520	11,482	62.0	784.0	4.2	6.8
1984	18,829	11,674	62.0	784.0	4.2	6.7

	총인구(A)	경제활동가능인구		군병력		
		15~64세(B)	비율	군병력(C)	C/A	C/B
1985	19,097	12,666	66.3	784.0	4.1	6.2
1986	19,313	12,805	66.3	838.0	4.3	6.5
1987	19,532	12,950	66.3	838.0	4.3	6.5
1988	19,753	13,097	66.3	870.0	4.4	6.6
1989	19,977	13,245	66.3	980.0	4.9	7.4
1990	20,221	13,902	68.7	990.0	4.9	7.1
1991	20,495	14,050	68.6	995.0	4.9	7.1
1992	20,798	14,159	68.1	1,010.0	4.9	7.1
1993	21,123	14,307	67.7	1,030.0	4.9	7.2
1994	21,353	14,456	67.7	1,030.0	4.8	7.1
1995	21,543	14,575	67.7	1,040.0	4.8	7.1
1996	21,684	14,679	67.7	1,055.0	4.9	7.2
1997	21,810	14,808	67.9	1,147.0	5.3	7.8
1998	21,942	14,871	67.8	1,003.0	4.6	6.7
1999	22,082	15,014	68.0	1,170.0	5.3	7.8

출처: 함택영, 앞의 책, <표5.7>, p. 234;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년판, 1999년판; 국방부, 「국방백서」, 1990년판~1999년판.

참고: 위의 표에서 고딕체에 해당되는 수치는 관련 자료에서 직접 구한 것이고, 이 외의 수치는 이를 기초로 필자가 추계한 것이다.

다. 무기수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일반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사부문의 수출입 실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부는 무기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민수품의 교역에도 깊숙하게 개입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무력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인 호위총국, 후방총국, 외화관리총국 등의 부서가 산하에 무역상사를 가지고 대외무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참모부 예하의 군단 급에서도 '34부' 관할하의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4월 인민무력부내 외화벌이 회사들에 대한 기구개편을 단행, 대외무역을 총괄할 '44부'를 신설하였다.¹⁶²⁾ 이 44부는 인민무력부 전체의 외화벌이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지도와 총화를 담당하는 최고 실무기관이다. 이 44부에는 인민무력부안 각 국 산하 무역상사들을 직접지도할 뿐만 아니라 군단과 군종, 병종 사령부에 있는 34부를 통해 이 단위들에 있는 무역회사들의 사업지도도 모두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¹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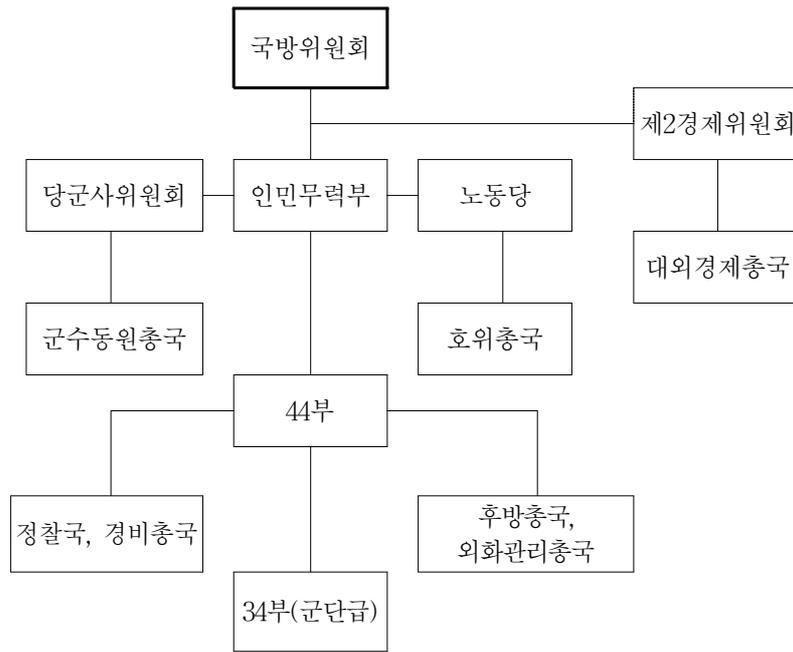
'매봉무역회사,' '룡악산무역상사' 등을 통해서 무기류를 포함하여 일반 상품까지 폭넓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 군부의 대외무역 실적은 북한 전체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⁴⁾

162) 군부내의 외화벌이 사업은 1986년까지는 '26부'라고 불리는 매봉무역회사가 인민군대 전체 무역회사들의 수출입을 모두 담당하였으나, 1987년 그동안 금·은·동·아연 등 유색금속 생산만을 전담하던 '25국'을 '25총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인민무력부 전체 수출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후 1989년 오극렬이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되면서 매봉으로 다시 수출입업무가 환원되었다가 무역회사간의 불화가 확대되면서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무력부안에 '44부'를 신설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계획작성과 집행을 위한 사업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63) 최주환, "자립 명분 돈벌려다 부패만 번져," 『WIN』, 1996년 9월호, p. 177.

164) 권오홍,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 『통일경제』, 1998년 6월호, p. 74.

<그림 2> 군부의 무역관련 기구표



북한의 군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외무역 활동은 각 부문이 자체적인 영역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음의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¹⁶⁵⁾

165)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1998, pp. 54~55.

<표 12> 군부문의 대외무역 활동

기관	소속과 활동 내용
대외경제총국	제2경제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용약산무역총회사'를 통하여 화학제품, 기계·공구류, 전기·금속제품, 잡화류 등을 수출입
군수동원총국	당 군사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군수 관련 비축품을 관리하며 '어은무역회사'를 직영
외화관리총국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으로, 국가계획위원회내 군수계획국에 계상되지 않은 자금을 용약산은행을 통해서 관리
호위총국	형식상 당소속 기관이나,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층과 주요 기관을 호위하는 역할을 주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철성무역회사'를 통하여 특수차량, 종이, 인쇄기계류의 수입을 추진
국방경비총국	무력부 산하기관으로 '은파산무역회사'를 통하여 귀금속, 농수산물 수출
정찰국	무력부 산하기관으로 '비로봉무역회사'를 통하여 광물제품, 수산물, 약초 등의 수출과 전자제품 및 어로용 자재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떡갈나무잎, 면타올의 남북 교역을 추진
44부	매봉무역총회사(비철금속 및 동 제품, 선철, 금·은 세공, 보석제품, 농수산물, 미술품 등 수출; 식량, 식용유, 광업 장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입; 아연괴 등 광산물, 농수산물 등 남북교역), 진주무역상사(각종 보석류 수출), 모란상사 등을 직접 관리
34부	군단 급에서 운영되는 무역회사로는 용성무역회사, 부흥무역회사(금·은·아연 등 광산물, 수산물 및 송이버섯 수출; 각종 차량 및 관련 설비·자재 수입; 냉동 수산물 남북교역) 등이 있다.

새헌법(1998.9.5) 발표 이후 북한은 대외무역 관련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의 대외경제위원회 조직의 대부분을 무역성으로 흡수하면서 통폐합과 신설작업을 통하여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⁶⁾ 또한 기존에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소속되었던 13개 회사를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수출권이 없는 무역회사를 통폐합하였으며, 경영 구조의 단일화·전문화 원칙에 의거하여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¹⁶⁷⁾ 이에 따라 내각 산하의 각 성(省)을 포함한 정부기구가 운영해 왔던 무역회사를 반드시 필요한 소수의 무역회사를 제외하고는 무역성 산하로 관리권을 이관도록 했으며, 지방 정부단체의 경우에는 각 도나 직할시에 단 한 개의 무역회사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대외무역 활동과 관련하여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 300여개에 달했던 무역회사의 수가 1999년에는 130여개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역조직 개편작업은 북한군 관련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상세한 실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군수산업은 외화획득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⁶⁸⁾ 북한은 무기수출을 통해서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다.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인 외화를 국방비로 충당함으로써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덜어 보고자하는 목적과 중동의 석유산유국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하는 대가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66) 12명에 달하던 부위원장을 6명의 부상으로 줄였으며, 기존의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 그리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을 통합하여 각 각 대외건설관리국과 경제합작관리국을 신설하였고, 무역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인 참사실을 신설하였다. KOTRA, “북한의 경제부처 개편내용 알려져,” 『북한뉴스레터』 1999년 2월호, p. 8.

167) 권영복, “북한의 무역조직 개편과 시사점,” 『통일경제』, 1999년 7월호, p. 80.

168) 홍영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통일연구원, 1999, pp. 28~30.

<표 13> 북한의 무기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무기수입(A)		무기수출(B)		무기수출입 합계(A+B)		무역수지(B-A)
	수입액	비율	수출액	비율	수출입액	비율	
1977	140	14.4	20	2.5	160	9.1	△ 120
1978	80	7.2	90	7.0	170	7.1	10
1979	210	13.2	60	3.9	270	8.6	△ 150
1980	90	5.0	200	11.5	290	8.2	110
1981	200	12.2	575	34.0	775	23.2	375
1982	340	18.3	650	35.0	990	26.7	310
1983	180	11.4	300	21.3	480	16.1	120
1984	120	8.3	575	32.5	695	21.6	455
1985	380	17.9	350	22.5	730	19.9	△ 30
1986	420	17.4	250	15.2	670	16.5	△ 170
1987	420	14.5	400	20.5	820	16.9	△ 20
1988	1,000	24.8	700	27.4	1,700	25.8	△ 300
1989	600	17.6	420	19.9	1,020	18.5	△ 180
1990	200	9.6	210	15.5	410	11.9	10
1991	5	0.3	220	22.3	225	8.1	115
1992	150	8.9	170	17.5	320	12.1	20
1993	120	6.6	180	16.9	300	10.4	60
1994	130	9.6	70	7.9	200	8.9	△ 60
1995	100	6.6	60	8.2	160	7.1	△ 40
1996	30	2.2	110	13.6	140	6.4	80
1997	30	2.2	70	7.8	100	4.4	40

자료: US ACDA, 1988(1977~83), 1995(1984~85), 1997(1986), 1998(1987~1997),
유엔의 무역 통계

참고: 표의 비율은 전체 수출(입) 및 무역총액에서의 비중이다.

북한의 무기수출은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에 편중되었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⁶⁹⁾ 특히 1980~87년 동안에만 북한은 이란에 총 24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¹⁷⁰⁾ 북한은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에게 미사일을 수출한 대가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구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원조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¹⁷¹⁾ 무기거래로 인한 적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1980년 후반을 예외적인 시기로 인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무기의 수출실적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무기수출은 외화부족 문제의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무기수출로 얻은 수입을 군사부문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지만 무기수출로 얻은 수입만큼 군사비 증대에 따르는 북한 민수경제부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성 분석

가. 기존의 연구결과

이달희(1990)는 북한의 군사비 증가가 공업성장, 인민경제비와 사

169) 최종철,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1995, pp. 349~54.

170)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1990, p. 217.

171) 소련은 이 기간동안 MIG-23 전투기와 SU-25 공격기(A-10 공격기의 소련판), SA-3 및 장거리 SA-5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최신에 MIG-29 전투기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영택,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p. 190.

회문화시책비 같은 타 예산지출 및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모형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바 있다.¹⁷²⁾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업생산은 세출에서 인민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비와도 정(正)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군사비가 1% 증가할 때 공업생산이 0.36%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업생산만을 고려할 때는 군사비 지출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중공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군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비 증가가 일반경제부문의 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주어진 예산규모에서 군사비를 1% 증가시킬 경우 인민경제비는 0.4%, 사회문화시책비는 0.3%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Durbin-Watson검정결과에 따르면 분석된 계량모형의 오차항이 정(正)의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공업생산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공업총생산이 1% 증가하는 경우 국민소득이 0.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공업생산과 군사비 지출간의 관계와 함께 고려하면, 군사비 1% 증가가 국민소득의 0.013% 증가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즉, 군사비 증가는 한편으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억제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이를 종합할 때 다소나마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황의각(1991)은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모형을

172) 이달희, 앞의 글, pp. 218~20.

통하여 분석하였다.¹⁷³⁾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국민총생산(GNP)의 증가율 보다 국방비의 증가율이 크게 나고 있으며, 국민총생산(GNP)이 10%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이 8.6%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군사비 지출은 국민소득과 정(正)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채기(1997)는 외환제약형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군비증강이 북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¹⁷⁴⁾ 그에 따르면, 북한의 군비증강과 그를 위한 군사비 투입이 1990년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국내저축 및 외환자원의 잠식을 통해서 일반경제에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군사비의 경제적 영향은 민간투자에 대한 잠식효과와 비군사부문에 필요한 생산재의 수입에 대한 잠식효과에 의존한다는 전제하에서 군사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1990년대에는 군사비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군사비 증가에 의한 민간투자에 대한 잠식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군사부문에 대한 수입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감소는 군사부문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외화공급능력의 제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일반경제부문에 상당한 기회비용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표 14>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173) 황의각, “국방비의 국민경제적 영향,” 『국방논집』, 제15호, 1991, p. 33.

174) 성채기,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국방논집』, 제40호, 1997, pp. 88~101.

<표 14> 군사비 지출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연구자	실증분석 결과	샘플 기간	비고
이달희	$\ln(IN) = -3.6788 + 0.8522\ln(EC) + 0.3607\ln(DE)$ (-3.09) (4.29) (3.27) $R^2 = 0.9988, DW = 1.68$	1967 ~84	
	$\ln(EC) = -1.4281 + 1.4279\ln(BU) - 0.4023\ln(DE)$ (-7.14) (16.7) (-5.30) $R^2 = 0.9979, DW = 0.76$	1962 ~84	IN: 공업총생산액 EC: 인민경제비 DE: 국방비 BU: 예산액
	$\ln(SC) = -1.7702 + 1.2656\ln(BU) - 0.2998\ln(DE)$ (-4.81) (8.02) (-2.15) $R^2 = 0.9921, DW = 0.69$	1961 ~84	SC: 사회문화시책비 NI: 국민소득 AG: 농업생산
	$\ln(NI) = 3.2433 + 0.7198\ln(IN) + 0.1842\ln(AG)$ (98.1) (193.2) (20.7) $R^2 = 0.9999, DW = 2.24$	1967 ~84	
황의각	$\ln(DE/POP) = 1.7488 + 1.1965\ln(GNP/POP)$ (7.57) (8.54) $R^2 = 0.73, RMSE = 1.21$	1958 ~89	DE: 국방비 POP: 인구수 GNP: 국민총생산
성채기	$CI = -7594.2 + 0.40NM + 2.37MI - 0.59MX + 1249DM$ (-5.0) (12.5) (9.0) (-3.8) (2.8) $R^2 = 0.972, DW = 1.84$ DM: 1985~87년=1, 그외는 0인 더미변수	1975 ~96	CI: 비군사 투자액 NM: 비농업 생산소득 MI: 자본재 수입액 MX: 국방비 AC = (CI(t) + CI(t-1))/2 FM: 총 외환공급액 - 군사부문의 수입 MM: 중간재 수입액
	$\ln(MI) = -8.53 + 0.76\ln(AC) + 0.97\ln(FM) + [AR(1) = 0.605]$ (-4.2) (2.1) (4.0) (3.5) $R^2 = 0.956, DW = 1.30$	1975 ~96	
	$\ln(MM) = -9.506 + 0.951\ln(NM) + 0.826\ln(FM) - 0.723DM$ (-3.0) (2.6) (7.2) (-7.6) $R^2 = 0.959, DW = 1.28$ DM: 1990년=1, 그외는 0인 더미변수	1975 ~96	

이들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논란이 되어 온 것만큼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통계자료의 미비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지나친 단순화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계 모형과 분석 결과

(1) 실증적 분석을 위한 모형

2장에서 논의되었던 북한에서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들을 종합하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기술도입 및 전파 효과, 공공재 공급 효과,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연구개발부문이 포함된 민간의 투자 구축효과와 수출부문의 가용자원 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기존의 이론들은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북한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북한 상황에 적합한 이론과 모형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용한 통계자료의 한계 안에서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위해서 분석의 대상과 북한상황을 단순화할 것이다. 먼저 분석대상은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외부효과(externality effect)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군사부문과 일반경제부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데 국한시키며, 북한경제구조를 최대한으로 단순화시키고자 한다.¹⁷⁵⁾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먼저 북한경제는 군수부문(M)과 민수부문(C)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부문에는 노동(L)과 자본(K) 두 가지 생산요소가 주로 투입되며, 군수부문의 생산은 민수부문에 '외부효과'를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기본적인 생산함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 = C(L_C, K_C, M) \quad (E1)$$

$$M = M(L_M, K_M) \quad (E2)$$

다음으로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각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민수부문에 비해 군수부문에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이 $(1 + \delta)$ 만큼 높다고 가정한다. 물론 여기에서 δ 의 값은 0을 포함하여 음의 상수 값을 취할 수도 있다.

$$(M_L / C_L) = (M_K / C_K) = (1 + \delta) \quad (E3)$$

175) 주요 참고 논문: Antonakis, Nicholas, "Gun verse Butter: a multisectoral approach to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with evidence from Greece, 1960~1993,"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4, August 1999, pp. 501~20; Biswas, Basudeb and Rati Ram, "Military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n augmented model and further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4, 1986, pp. 361~72.

결국 북한경제구조에서 총 생산량(Y)과 총 요소투입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C + M \quad (E4)$$

$$L = L_C + L_M \quad (E5)$$

$$K = K_C + K_M \quad (E6)$$

위의 생산함수와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도출된다.¹⁷⁶⁾

$$\dot{Y} = C_L \dot{L} + C_K I + \{ \delta / (1 + \delta) \} + C_M \dot{M} \quad (E7)$$

여기에 LOG함수를 적용하면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text{Log}(Y_t) = b_0 + b_1 \text{Log}(L_t) + b_2 \text{Log}(I_t) + b_3 \text{Log}(M_t) + u_t \quad (E8)$$

여기에서 Y는 국가 총 생산물, L은 노동력, I는 투자비율, M은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2)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을 위하여 1960년부터 1999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잡았으며, 사용한 통계자료는 1980년대까지는 통일부의 자료를, 1990년대의 자료는 한국은행과 국방부 및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¹⁷⁷⁾ 그러

176) 자세한 도출과정은 <부록> 참조.

177) 국가 총 생산물은 북한의 명목GNI를, 노동력은 노동가능연령(15~65세)의 인구를, 투자액은 예산지출액 중에서 인민경제비를 사용하였다.

나 분석 목적에 적합한 성격의 통계치를 구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통계치가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추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consistency)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분석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위의 추계모형이 북한의 상황에 적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등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분석은 연도별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샘플기간을 3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먼저 1960년부터 1999년까지 전기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I), 다음으로 1960~70년대와 1980~90년대로 구분하였고(II), 마지막으로 연대별로(III) 분석하였다. <표 15>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과 정(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1960~70년대와 1980~90년대를 구분하여 본 결과에 따르면 1980~90년대에서 정의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1990년대에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의 기간동안 북한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후퇴해 온 것을 고려할 때, 1990년대 북한의 군사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경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논란이 되어 온 것만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이번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에서 군사부문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경제발전 저해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가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

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0년대 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에서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가 일반경제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에서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이 가져온 기술도입 및 전파 효과, 공공재 공급 효과,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 효과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민간의 투자 구축효과와 수출부문의 가용자원 축소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하여 정(正)의 순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15> 군사비 지출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b_0	b_1	b_2	b_3	샘플기간	R^2	DW
I	-2.192 (-2.05)	0.375 (4.10)	0.498 (5.54)	0.428 (6.34)	1960~1999	0.702	2.41
II	-14.294 (-2.78)	1.781 (2.98)	0.494 (4.08)	0.171 (0.73)	1960~1979	0.991	1.24
	1.973 (0.43)	-0.030 (-0.05)	0.444 (3.51)	0.400 (1.19)	1980~1999	0.806	1.42
III	-13.725 (-2.38)	1.835 (2.73)	-0.170 (-1.45)	0.369 (1.50)	1960~1969	0.995	1.94
	-9.486 (-0.34)	1.238 (0.39)	0.574 (1.51)	0.146 (0.54)	1970~1979	0.984	1.52
	0.768 (1.14)	-0.017 (-0.20)	0.776 (7.65)	0.305 (2.59)	1980~1989	0.999	2.71
	66.53 (2.18)	-6.802 (-2.13)	-0.204 (-0.68)	1.217 (2.20)	1990~1999	0.787	2.93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구결과가 갖는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보수적인 접근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북한 스스로 군수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일반경제부문의 발전계획이 차질을 빚었음을 시인한 1960년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실증분석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노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용가능한 통계자료의 제약과 북한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교한 모형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에서 군수부문과 민수부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원과 인력을 군사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에 군수산업부문의 생산성이 민수부문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해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증대가 경제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경제성장의 속도 감소와 침체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군사비 지출의 증대가 아닌 경제정책 운용과 기업의 관리방식이 잘못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부문의 기술과 생산물자가 일반경제부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유입되고 있다는 점과 주요 수출물자를 군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군사부문의 과도한 비중은 장기적으로 일반경제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적인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발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의하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경공업부문에 투자할 자금을 군수산업부문으로 전용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열악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분석이 갖는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공업부문에 대한 북한당국의 상대적인 무관심은 주민들의 근로의욕을 위축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약화시켰으며 장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공업부문의 기술발전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사전에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북한의 군수산업 관련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결론을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은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공업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4월 8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5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보고대회」에서 “우리 국방공업은 자체의 힘으로 현대전에 상응한 높은 성능의 군사장비 수요를 훌륭히 감당할 수 있는 위력한 자주적 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 것은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며 장군의 사상과 정치를 지켜 주체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국사중의 국사”라고 역설한 바 있다.¹⁷⁸⁾ 또한 노동신문도 “자립적 국방공업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가장 귀중한 밑천”으로 “우리는 적들의 군비증강책동에 대처,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방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인 혁명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⁷⁹⁾

올해(2000년) 초에 발표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총대’를 강조한 바 있다. 공동사

178) 「중앙방송」, 1998.4.8.

179) 「노동신문」 사설, 1998. 4. 8

설은 “총대중시는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하여야 할 국사중의 제일 국사”라고 역설하면서 “오늘의 세계에서 사회주의 운명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은 국방중시의 길”임을 거듭 강조하였다.¹⁸⁰⁾ 이는 북한이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한 우선적인 노력은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2월 하순부터 “민족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5년”이라는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5년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활동상을 각 부문별로 소개한 바 있다. 이 특강의 13회 방송에서는 선군정치의 본질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기본정치방식이라는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¹⁸¹⁾ 또한 “총대의 역할은 사회주의 정권을 세울 때에도 절대적이고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고 완성하는 시기에도 절대적”이라면서 사회주의 정치에서 군사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가 긴장하면 군사를 강화하다가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를 약화시키고 경제과업이 전면에 나서면 국방을 췌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사회주의 정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15회 방송에서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됨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소탕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²⁾ 이 방송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고난의 행군과 강행

180) 『중앙방송』, 『평양방송』, 2000. 1. 1.

181) 『평양방송』, 2000. 3. 3.

군 시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공업에 힘을 넣도록” 지시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식 주체식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군대의 현대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식, 주체식’이란 군장비를 북한군의 전투적 기질과 체질,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또한 현대적 무기와 재래식 무기, 큰 무기와 작은 무기를 적절히 배합하고 작고 가벼우면서도 그 위력을 최대 높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인민군대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릇하게 갖춘 세계적인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조선인민군’ 창건 68주년을 맞이하여 게재한 『로동신문』 사설을 통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를 받들어 군사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한 바 있다.¹⁸²⁾ 사설은 “오늘 우리 앞에는 ... 우리 조국을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건설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백전백승의 결정적담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넣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충대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영원한 혁명철학”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강조하였는데, “군인들 속에서 혁명무력건설과 강화발전에서 최고사령관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역할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군대의 최대의 사명”이라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전개하여 “전군에 최고사

182) 『평양방송』, 2000. 3. 5.

183) 『로동신문』,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영광 떨칠 것이다,” 2000. 4. 25.

령관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꼭 차넘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군체계 및 군사규율 확립이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모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의 확립이다. “총대중시와 군사중시는 사회주의 수호와 강성대국건설의 근본담보”라면서 전체 인민이 군인들처럼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고, “이와 함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군민일치운동’과 ‘혁명적 군인정신’ 발휘다. 사실은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인민생활에서 애로되는 것이 많다고 하여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방침으로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군민일치운동과 단원과 근로자들의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 배우기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군대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강화 방침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제의 생산력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군수부문의 정상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의 대북경제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사업이 북한의

군사부문을 우선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부문에 대한 우선적 강화를 강조하는 모습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신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구현함으로써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하고 있다.¹⁸⁴⁾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면서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인민들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천만이 총폭탄이 되고 성새 방패가 되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군사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에서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기치 하에서 국방력 강화를 역설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배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진력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잠정적이거나 국방건설 우선 정책을 유보하고 일반경제부문의 생산 증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형성된 우호적인 남북관계 및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무기개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경제 건설에 매진하는 보다 온건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북

184) 『로동신문』, “당 창건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기세로 강성대국을 다그치자,” 2000. 10. 16.

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호전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인식,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당분간은 과거와 같이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북한이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미사일 판매와 개발을 포기하는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김정일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려는 카드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군사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 확대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특히 군사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경제발전이 뒷받침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향후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은 체제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에 대한 최소한 투자는 은밀하게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체제와 정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보수·강경 성향의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력 회복이라는 목표도 결국은 체제와 정권 유지라는 최고의 선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군수산업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 부 록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먼저 북한경제는 군수부문(M)과 민수부문(C)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부문에는 노동(L)과 자본(K) 두 가지 생산요소가 주로 투입되며, 군수부문의 생산은 민수부문에 '외부효과'(externality effect)를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기본적인 생산함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 = C(L_C, K_C, M) \quad (E1)$$

$$M = M(L_M, K_M) \quad (E2)$$

위 방정식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dot{C} 와 \dot{M} 은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연간 분석의 경우 일년동안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dot{C} = C_L \dot{L}_C + C_K \dot{K}_C + C_M \dot{M} \quad (A1)$$

$$\dot{M} = M_L \dot{L}_M + M_K \dot{K}_M \quad (A2)$$

민수부문에 비해 군수부문에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이 $1 + \delta$ 만큼 높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얻었다.

$$(M_L / C_L) = (M_K / C_K) = (1 + \delta) \quad (E3)$$

또한 총 생산량(Y)은 가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C + M \quad (E4)$$

(E4)을 시간 t 로 미분하면,

$$\dot{Y} = \dot{C} + \dot{M} \quad (\text{A3})$$

방정식 (A1), (A2)을 방정식 (A3)에 대입하고, (E3)을 이용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dot{Y} = C_L(\dot{L}_C + \dot{L}_M) + C_K(\dot{K}_C + \dot{K}_M) + \delta(C_L\dot{L}_M + C_K\dot{K}_M) + C_M\dot{M} \quad (\text{A4})$$

여기에 다음의 관계식을 적용하면, (A4)은 (A7)로 단순화된다.

$$L = L_C + L_M \quad (\text{E5})$$

$$K = K_C + K_M \quad (\text{E6})$$

$$\dot{L} = \dot{L}_C + \dot{L}_M \quad (\text{A5})$$

$$\dot{K} = I = \dot{K}_C + \dot{K}_M \quad (\text{A6})$$

단, 여기에서 I 는 총 실질투자지출을 의미한다.

$$\dot{Y} = C_L\dot{L} + C_K I + \delta(C_L\dot{L}_M + C_K\dot{K}_M) + C_M\dot{M} \quad (\text{A7})$$

여기에 (A2)와 (E3)를 결합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도출된다.

$$C_L\dot{L}_M + C_K\dot{K}_M = \{1/(1 + \delta)\}\dot{M} \quad (\text{A8})$$

(A8)을 (A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dot{Y} = C_L\dot{L} + C_K I + [\{\delta/(1 + \delta)\} + C_M]\dot{M} \quad (\text{A9})$$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국방부, 1999.
- 김용환, 「러시아 군수산업경제와 군수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94.
- 오길남, 「북한의 노동력 구조」.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이명수, 「북한의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1998.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도
- 통일연수원,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보성문화사, 1995.
- 한국개발연구원 (역),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1991.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 홍영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통일연구원, 1999.
- Benoit, Emile, *Defenc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D.C. Heath, 1978.
- Chan, Steve and Alex Mintz(eds.), *Defence, Welfare, and Grow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 Cooper, Leo, *The Political Economy of Soviet Military Power*,

-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 Kornai, János,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Maddock, Rowland 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rms Rac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90.
- Sandler, Todd and Keith Hartley, *The Economics of Def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2. 논문

- KOTRA, “북한의 경제부처 개편내용 알려져,” 『북한뉴스레터』, 1999년 2월호.
- 권영복, “북한의 무역조직 개편과 시사점,” 『통일경제』, 1999년 7월호.
- 권오홍,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 『통일경제』, 1998년 6월호.
- 김철환, “북한의 군수산업실태 및 민수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V): 북한의 군사분야』, 통일원, 1993.
- 박춘삼, “북한 군사비규모 판단,” 국방정책연구원, 『국방논집』, 제15호, 1991.
- 백환기, “북한의 군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방연구』, 1996.6.
- 성채기,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국방논집』, 제40호, 1997.
- 원희, “북한 인민경제의 구조적 특징,” 『민족통일』, 2000년 5월호.
- _____, “북한 군수경제의 구조적 특징,” 『민족통일』, 2000년 8월호.
-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화 전망,” 『통일경제』, 1995년 8월호.

- 정유진, “북한 군수산업실태와 운영,”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1997.
- 최종철,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1995.
- 최주환, “자립 명분 돈벌려다 부패만 번져,” 『WIN』, 1996년 9월호.
- 황의각, “국방비의 국민경제적 영향,” 『국방논집』, 제15호, 1991.
- Antonakis, Nicholas, “Gun verse Butter: a multisectoral approach to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with evidence from Greece, 1960-1993,”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4, August 1999.
- Benoit, Emile, “Growth and defense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6, 1972.
- _____, “Growth effects of defens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4, 1972.
- Biswas, Basudeb and Rati Ram, “Military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n augmented model and further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4, 1986.
- Chan, Steve, “Defense Burden and Economic Growth: unravelling the Taiwanese enig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 1988.
- Faini, Ricardo, Patricia Arnez, and Lance Taylor, “Defense Spending, Economic Structure and Growth: evidence among countries and over tim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2, 1984.
- Heo, Uk, “Modeling the Defense-Growth Relationship around the Glob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5, October 1998.

- Lebovic, James H. and Ashfaq Ishaq, " Military Burden, Security Needs, and Economic Growth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1, 1987.
- Loony, R. E. and P. Frederiksen, "Defense Expenditures, External Public Debt and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3, 1986.
- Rothschild, Kurt W., "Military Expenditure, Exports and Growth," *Kyklos*, Vol. 26, 1973.
- Smith, Ron P. and George Georgiou, "Assessing the Effect of Military Expenditure on OECD Economies: a survey," *Arms Control*, Vol. 4, 1983.

3. 기 타

-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 1999.
-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경제학대사전」, 박영사, 1984.
- 「노동신문」
- 「연합뉴스: 북한·통일·재외동포」
-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연합뉴스, 2000
- 북한 「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용범·박현채, 「정치경제학사전」, 돌베개, 1988.